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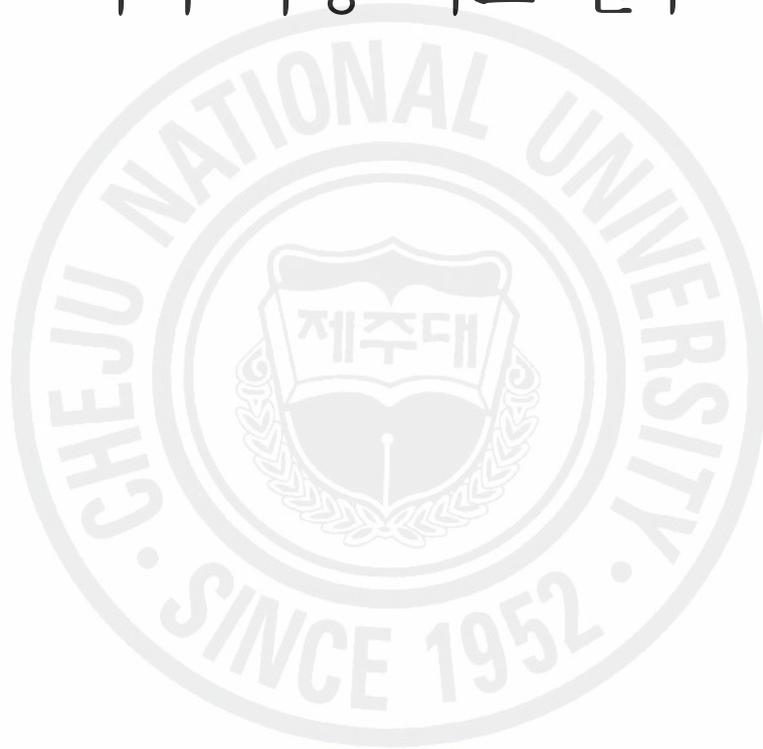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중(韓中)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보 미

2007년 8월

한·중(韓中)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 비교 연구

지도교수 최 규 일

김 보 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6월

김보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 8월

한·중(韓中)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 비교 연구

김보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최규일

어휘 습득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 중요하다. 물론 어휘 습득만으로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어휘는 외국어 학습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어휘교육에서 인지의미론적 접근은 언어 현상의 기저에 있는 인간의 개념체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준다. 또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기초어휘의 의미 확장을 통한 어휘교육은 단어 형성력, 표현력, 사고력 신장면에서도 유익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초어휘인 인체어휘를 대상으로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한·중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 한국인이 중국어를, 중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인체어휘의 다의적 표현이나 관용적 표현 습득에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인체어의 외부기관 어휘 중에서 여러 의미로 확장이 잘 이루어지는 ‘머리, 얼굴, 눈, 코, 귀, 입, 손, 배, 발’ 9개 인체어에 한정하며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의미 확장을 살펴보았다. 그 비교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체어 ‘머리’에 관한 한국어 ‘머리’와 중국어 ‘头·脑·首’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머리’의 의미 자질과 중국어 ‘头’가 가장 비슷한 의미 자질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인체어 ‘얼굴’에 관한 한국어 ‘얼굴’과 중국어 ‘面·脸’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얼굴’에 대해 중국어 ‘脸’의 의미자질이 보다 유사했으며 형태면을 제외하고 구성면, 기능면에서 한·중 인체어 ‘얼굴’의 의미 자질이 유사했다.
3. 인체어 ‘눈’에 관한 한국어 ‘눈’과 중국어 ‘目·眼’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눈’과 중국어 ‘眼’의 의미 자질이 비교적 유사했다. 특히 구성면,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이 유사했으며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은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가 보다 넓게 일어나고 있었다.
4. 인체어 ‘코’에 관한 한국어 ‘코’와 중국어 ‘鼻’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한·중 인체어 ‘코’의 의미 확장 양상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인체어 ‘입’에 관한 한국어 ‘입’과 중국어 ‘口·嘴’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입’에 비해 중국어가 특히, ‘口’의 의미 확장이 광범위하게 일어남을 볼 수 있다.

6. 인체어 ‘귀’에 관한 한국어 ‘귀’와 중국어 ‘耳’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한·중 인체어 ‘귀’의 의미 확장 양상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인체어 ‘손’에 관한 한국어 ‘손’과 중국어 ‘手’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한·중 인체어 ‘손’의 의미 확장이 거의 유사했으며 의미 항목 또한 다른 인체 부분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8. 인체어 ‘배’에 관한 한국어 ‘배’와 중국어 ‘腹·肚’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본 결과 구성면에서는 한국어 ‘배’와 중국어 ‘腹’이 유사한 의미 자질을 가지며, 기능면에서는 한국어 ‘배’와 중국어 ‘肚’가 유사한 의미 자질을 갖는다.

9. 인체어 ‘발’에 관한 한국어 ‘발’과 중국어 ‘足·脚’의 의미 확장을 살펴본 결과 한·중 인체어 ‘발’의 의미 확장은 특히 기능면에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인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생각하고 범주화하는 양상은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어 사용 언어를 막론하고 인체어의 의미 확장에 비슷한 개념 체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인지의미론적 접근을 통하여 한·중 양 언어 신체어휘의 다의 현상을 대조 분석한 결과, 한·중 양 언어 언어사용자의 언어습관에서 인지과정상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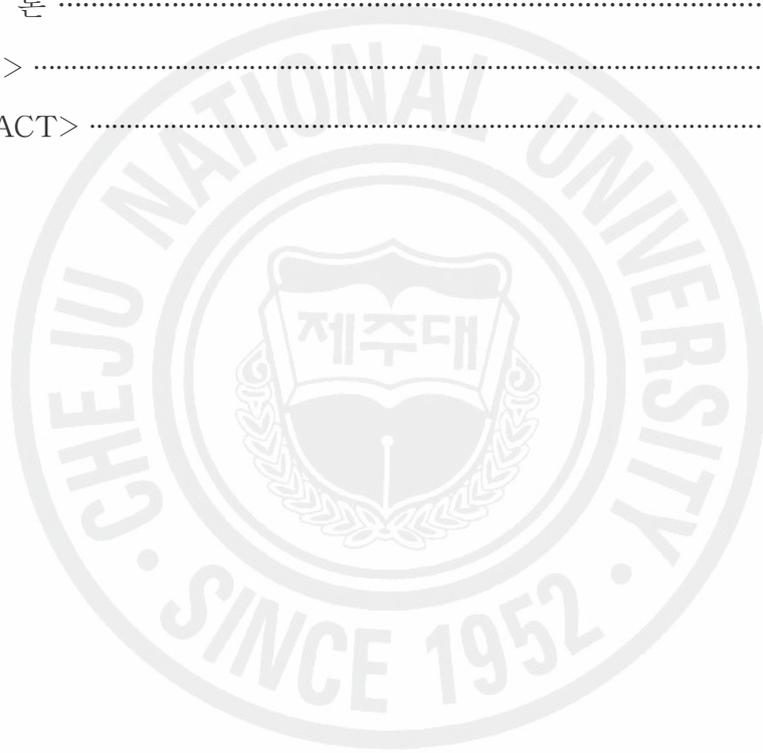
목 차

<국문초록>

1. 서 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범위와 방법	2
1.3. 선행 연구 검토	3
2.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 이론	6
2.1. 의미 확장의 원리	6
2.2. 의미 확장의 기제	7
2.2.1. 인접성	7
2.2.2. 유사성	9
2.3 의미 확장의 방향	10
3. 한·중(韓中)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	11
3.1. 머리-頭·腦·首	11
3.1.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11
3.1.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17
3.1.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22
3.2. 얼굴 - 面·臉	24
3.2.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24
3.2.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27
3.2.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29
3.3. 눈-目·眼	30
3.3.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30
3.3.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33
3.3.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34

3.4. 코-鼻	36
3.4.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37
3.4.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39
3.4.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41
3.5. 입-口·嘴	42
3.5.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42
3.5.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43
3.5.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44
3.6. 귀-耳	47
3.6.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47
3.6.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48
3.6.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49
3.7. 손-手	50
3.7.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50
3.7.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51
3.7.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54
3.8. 배-服·肚	58
3.8.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58
3.8.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59
3.8.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61
3.9. 발-足·脚	62
3.9.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63
3.9.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64
3.9.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64
4. 한·중(韓中)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 비교	69
4.1. ‘머리’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69
4.2. ‘얼굴’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71
4.3. ‘눈’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72

4.4. ‘코’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73
4.5. ‘입’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75
4.6. ‘귀’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77
4.7. ‘손’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79
4.8. ‘배’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80
4.9. ‘발’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82
4.10. 한·중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 비교 결과	84
5. 결 론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2



1. 서 론

1.1. 연구 목적

하나의 단어를 인지한다는 것은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단어와 관련된 사실이나 확장된 개념에 관한 이해까지 포함한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존 지식(경험)의 테두리에 새로운 지식을 접목시키는 과정을 통해 또 다른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데 인간의 경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는 인간의 인체와 관련된 어휘이다. 이것은 우리의 몸으로 직접 많은 현상을 이해하고 말하려는 경향 때문인데¹⁾ 이러한 인체 어휘는 기초어휘로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초어휘 중에 인체어휘는 인간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체 부위에 관한 명칭으로 그 자체로 사용 빈도가 높을²⁾ 뿐 아니라 다른 사물이나 새로운 사물을 명명할 때 활용도가 높다. 인체어휘는 단순히 형태적, 구성적, 기능적 측면에서 인체 부위를 대상으로서 지시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다른 정신 상태와 활동을 암시하고 묘사하는 예가 많다. 이는 인체어휘가 함축적, 비유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며 이는 인간의 인지 작용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어휘들은 학습자의 두뇌 속에 개별적으로 저장되

1) 아리조나주의 서부 아파치 인디언어에서 인간 인체 구분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화 항목인 자동차의 각 부분을 가리키는 것을 인체어가 확대되어 쓰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턱(daw)이 자동차의 앞범퍼, 손과 팔이 앞바퀴로, 눈이 전조등으로 쓰인 것들이다.

Fard. P.(1973), 「말 그 모습과 쓰임(Word Flay: What Happens When People Talk)」, 이기동 외 공역(1997), 한국문화사, p.215.

이처럼 인간을 중심으로 주위의 사물과 사태를 파악하는 원리를 'Me first principles(cooper & ross, 1975)'라 한다. 이것은 사물이나 사태에 대하여 나에게 가까운 요소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파악해 나가는 인간 본유적 성향 때문이다.

Lakoff.G. & Johnson.M.(1980), 「삶으로서의 은유(Metaphors We Live By)」, 노양진·나익주 역(1995), 서광사, pp.179-181.

2) 낱말은 단의적인 것이 이상적일 듯 하지만 실제로는 다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 같은 말들은 물론 단의적일 수밖에 없고 사용빈도가 낮은 어휘 중에는 단의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일상생활 용어로서의 낱말, 그 중에도 고유어라고 할 만한 것은 대개가 다의적이며 그 쓰임의 빈도가 높을 것일수록 다의적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남기섭(1995), 「어휘 의미와 문법」, 「동방학지」, 88호, 연세대 국학연구원, p.157.

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기억된다고 보는 것이 인지미론의 견지인데 어휘교육에서 인지미론적 접근은 언어 현상의 기저에 있는 인간의 개념체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학습자가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지 않은 것도 이미 배운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지미론적 관점에서 기초어휘의 의미 확장을 통한 어휘교육은 단어 형성력, 표현력, 사고력 신장면에서도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지미론적 관점에서 한·중 인체어의 의미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 한국인이 중국어를, 중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학습용의 기초어휘가 많은 인체어휘의 다의적 표현이나 관용적 표현 습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인체어는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크게 외부기관과 내부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기관 어휘에 비하여 외부기관 어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언어 습득도 잘 된다(최규일, 1972).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부기관 인체어에 한정하여 제시하고 그 중에서 여러 의미로 확장이 잘 이루어지는 ‘머리, 얼굴, 눈, 코, 귀, 입, 손, 배, 발’ 9개 인체어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한국어에는 인체어 각각의 어휘도 고유어, 한자어, 그 밖의 외래어 등이 복합되어 쓰이고 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고유어 인체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의미의 확장 양상을 비교적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한국어 인체어는 고유어 인체어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인체어는 머리-头·脑·首, 얼굴-面·脸, 눈-目·眼, 코-鼻, 입-口·嘴, 귀-耳, 손-手, 배-腹·肚, 발-足·脚와 같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인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생각하고 범주화하는 양상은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어 사용 언어를 막론하고 인체어의 의미 확장에 비슷한 개념 체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인체어의 의미 확장 양상 또한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의 인체어가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인접성과 유사성을 통해 추상적, 정신적 의미로 확장되는 양상을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체어휘를 비교해 살펴보겠다.

이 논문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中韓辭典」, 「韓中辭典」을 기본 텍스트 자료로 이용한다.

1.3. 선행 연구 검토

1.3.1. 인체어에 관한 선행 연구

인체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최규일(1972, 1982)에서 비롯된다. 이 논문은 인체어를 총체적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논문이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인체어를 어휘론적으로 연구하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그밖에 인체어를 다룬 논의로는 김문창(1976), 강병윤(1983), 양태식(1983), 우형식(1988), 홍사만(1985, 1986, 1991, 1993), 마성식(1996), 이경자(1996), 이지현(1996), 한은영(1997), 박명아(2000), 김보경(2000), 배도용(2001), 박경숙(2003) 따위이다.

김문창(1976)은 인체어 ‘손’을 중심으로 합성어를 이루는 말들에 관하여 기본적인 형태론적 분석을 하여 각 어사가 지시하는 의미 내용과 여러 어사간에 존재하는 유연성의 정도, 그리고 통사론적 구조를 지니는 숙어의 자질에 대하여 살피고 그 결과 인체어는 형태 의미론적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하고, 숙어는 통사 의미론적 측면에서 생산적임을 밝히고 있다. 양태식(1983)은 ‘손’을 둘러싼 어휘소 무리 현상에 관한 의미론적 구조에 관해서 제시해 놓고 있다.

우형식(1988)은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동위 관계의 내부구조와 외부구조로 구별하고, 인체어 의미의 구조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의 현상은 한

어휘의 가로관계와 세로관계의 의미자질의 변화라고 규정짓고 다의어의 의미 분석은 다른 언어요소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홍사만(1985, 1986, 1991, 1993)은 인체어의 다의 구조 분석 (I), (II), (III), (IV)에서 각각 ‘손’, ‘머리’, ‘눈’, ‘발’과 ‘낯(얼굴)’등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인체어의 의미 구조가 주의로부터 문맥과 어사 환경에 따라 다의적으로 확장되는 데는 유연성이라는 기제가 반드시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성식(1996)은 인체어 ‘손’과 ‘발’을 바탕으로 어휘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 전이 현상과 생성된 어휘가 관용어를 이루면서 어떻게 의미 전이가 일어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경자(1996)는 인체어 ‘눈’ 속에 스며있는 언어적 특성을 통해 우리 문화와의 일치점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지현(1996)은 ‘손’ 바탕 어휘 생성에 관하여 제시하고 한은영(1997)은 인체어와 관련된 속담의 의미들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박명아(2000)에서는 ‘눈, 손, 코, 입, 귀’ 따위 인체어와 관련된 관용표현을 의미적, 형태적으로 분류하고 김보경(2000)에서는 한국어의 인체어를 대상으로 하여 은유와 환유에 따른 의미 확장 과정을 살피고, 이를 통해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의 생성 과정에 대해 논의 하였다.

배도용(2001)은 인체명사인 ‘손, 머리, 눈’을 분석하고, 이것을 세 가지 국면 구조인 형태면, 구조면, 기능면에 의거하여 의미 확장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체어에 관한 연구는 인체어의 통시적인 어원고찰,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의미 확장,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인체어의 관용표현, 속담에 관한 것 따위이다. 즉 인체어는 여러 의미로 확장되며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2. 의미 확장에 관한 선행 연구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의미 확장을 다룬 논의로는 이기동(1984, 1986), 임지룡(1996, 1998), 이종열(1998) 등이 있다.

이기동(1984)은 비슷한 사물들끼리 묶는 범주화에는 기준 속성모형과 원형모형이 있으며 그 가운데 원형모형이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데 더 적합하게 쓰일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의미 확장에는 한 낱말이 가리키는 지시물이 실제 개체나 실제 개체의 표상일 가능성으로 해서 확장되거나 낱말이 갖는 개념의 적용 영역을 바꿈으로써 확장되는 두 가지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기동(1986)은 낱말의 의미가 사물의 범주화 능력과 관계있으며 의미 변화나 확장은 은유와 환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지룡(1996)은 인지의미론의 틀에서 해결해야 할 다의어의 과제와 과제 해명이 갖는 의의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임지룡(1998)은 다의어를 이루는 원형의미와 확장의미가 비대칭적이라고 보고, 그 비대칭성을 구조적·빈도적·인지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들 논의는 인지 과정이 인간의 인체적·문화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전통·구조 의미론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의미 확장을 인간의 인지 과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인체어의 의미 확장과 관련하여 대조 분석은 한·일 대조 분석이 강덕구(1995)에서 ‘얼굴, 눈, 머리’를 중심으로 한 논의, 신혜영(1998)에서 ‘입, 배’를 중심으로 한 논의, 최택호(2004)에서 ‘귀, 눈, 머리, 얼굴, 입, 코, 가슴, 배, 손, 발·다리’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에 비하여 한·중 대조 분석은 이상도(1999)에서 인체어 ‘손/手’에 관한 대조가 있다. 이것은 인체어의 한·일 대조 분석에 비해 한·중 대조 분석이 대조 항목 수가 빈약함을 볼 수 있다.

대조 분석에서 어휘 대조는 각 언어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구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인체 어휘는 함축적, 비유적 의미를 지니며 관련 표현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체계적인 어휘력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인간은 모두 비슷한 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어를 통한 어휘 교육은 학습자에게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한·중 인체어의 의미 확장 과정을 살펴보겠다.

2.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 이론

2.1. 의미 확장의 원리

우리는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에 직면할 때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첫째,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내거나 둘째, 기존 단어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일이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의미 확장은 후자에 해당하며 낱말이 본래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문맥이나 상황에 사용되면서 문맥적 변이로 포괄할 수 없을 때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³⁾.

- (1) (ㄱ) 손을 씻어라
- (ㄴ) 손이 모자란다.
- (ㄷ) 손을 끊겠다.

위의 예문에서 ‘손’의 의미를 사람의 팔목 아래 달린 인체의 한 부분으로 이해한다면 (ㄱ)의 예문에서는 가능하겠지만 (ㄴ)이나 (ㄷ)에 적용하기에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는 ‘손’의 의미가 (ㄱ)의 원형적 의미에서 확장하여 (ㄴ)에서는 ‘일손, 노동력’, (ㄷ)에서의 ‘단절’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형의미’는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의미(중심의미)를 말하고, ‘확장의미’란 파생적이고 전이된 의미를 말한다.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는 의미망의 범주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때 이 원형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들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데 인지의미론에서는 그 주요 요인으로 인간의 인접성 인지 능력과 유사성 인지 능력을 들고 있다.

3)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호, 한국언어학회, pp.248-249.

2.2. 의미 확장의 기제

의미 확장은 인접성과 유사성이라는 인간의 인지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접성 인지 능력이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지시 대상을 관련시키는 능력, 곧 환유⁴⁾로 낱말의 의미 영역을 넓히는 일이다. 유사성 인지 능력은 지시 대상과 지시 대상 사이에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 곧 은유⁵⁾로 낱말의 의미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⁶⁾. 이러한 인접성 인지 능력과 유사성 인지 능력이 의미를 확장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2.2.1. 인접성

인접성에 따른 의미 확장은 하나의 개념영역 안에서 한 개체의 이름을 사용하여 인접한 다른 개체를 지시하는 표현 방식으로 단순히 명칭을 대신 지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에 관한 인지 작용과도 연관되어 있다.

(2) (ㄱ) 그는 우리 모임에 머리 노릇을 하고 있다.

인체 부위가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한다.’는 인접성에 의해 사람을 표현한다고 볼 때 (ㄱ)은 단순히 인체 부위 ‘머리’로 ‘사람’을 대신한다고 볼 수 없다.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한다.’라는 환유의 경우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예를

4) 환유는 전통 수사학에서 문체론의 한 특성으로 기술되었으며 사적 의미론에서는 의미변화의 한 원천으로 논의되었을 뿐 언어학적 주요 관심사가 되지는 못하였다. 최근 들어 인지언어학에서는 환유의 편제성과 체계성을 주목하여 그 의미특성이 우리의 언어, 사고, 태도 및 행위를 구조화하는 중요한 인지기제이며 환유의 개념화는 우리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임지룡(1995), “환유의 인지적 의미 특성”, 『국어교육연구』, 27호, 국어교육학회, p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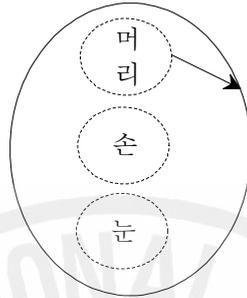
5) 다음과 같은 기준을 들어 은유를 정의하고 있다.

- 근원 개념의 지시대상과 목표 개념의 지시대상이 서로 다르다.
- 전이 현상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경험적인 영역과 관계되어 있다.
- 전이 현상이 형식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 은유에 의해 표현된 서술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실이 아닌 문장이 된다.

Heine, B.(1997), 『문법의 인지적 기초(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이성하·구현정 역(2004), 도서출판 박이정, p.295.

6)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호, 한국언어학회, p.249.

들어 ‘그는 우리 모임에서 손(발)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인체 부위 ‘머리’로서 ‘사람’을 대신하는 것은 ‘머리’의 특별한 속성, 즉 ‘지적 능력’을 담당하는 속성으로 ‘그’가 우리 모임에서 하는 구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1. 인접성 인지 능력에 따른 머리의 의미 확장7>

<그림1>은 인간의 인접성 인지 능력에 따라서 인체구성의 ICM⁸⁾ 내에서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특정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적 능력’을 가리킬 때는 ‘머리’를, ‘기술’이나 ‘솜씨’를 의미할 때는 ‘손’을, ‘주의력’에 초점을 맞출 때는 ‘눈’을 통해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러한 인접성 인지 능력에 따른 인체어 ‘머리’의 의미 확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 부분과 전체 인접: 머리를 헤아리다.(사람)
- 전체와 부분 인접: 머리를 빗다.(머리카락)
- 주체와 기능 인접: 머리가 영리하다.(지능)

<중국어>

- 부분과 전체 인접: 滑头(교활한 사람)
- 전체와 부분 인접: 洗头(머리를 감다)
- 주체와 기능 인접: 很有头脑(머리가 아주 좋다)

7) 이종열, 앞의 책, p.124.

8) ICM이 단순히 수동적인 영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능동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대로 전수되면서 문화적 규범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ICM은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문화적인 경험과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하나의 단위로 조직화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지룡(1997),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p.127.

2.2.2. 유사성

유사성은 두 개의 개념영역을 위치, 형태, 구성, 기능 측면에서 비교와 동일시를 통해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때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저성을 띠는 것을 원천 영역이라 하고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목표 영역이라 하는데 구체적인 원천 영역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목표 영역을 표현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위해서 서로 다른 두 영역에 속하는 개체들의 유사성은 찾아내어 부각시키고, 반면 차이점은 무시한다.

유사성에 따른 한국어와 중국어의 ‘머리’ 의미 확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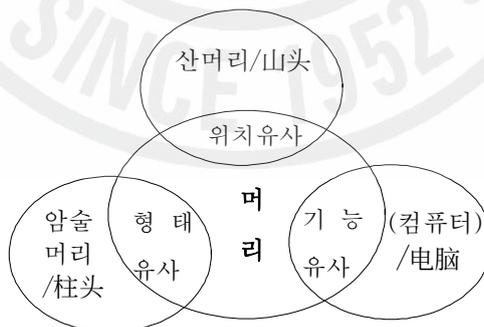
<한국어>

- 위치 유사: 산머리, 말머리
- 형태 유사: 음표머리, 암술머리

<중국어>

- 위치 유사: 山头(산머리), 话头儿(말머리)
- 형태 유사: 符头(음표머리), 柱头(암술머리)
- 기능 유사: 头(컴퓨터의 head), 电脑(컴퓨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유사성 인지 능력에 따른 머리의 의미 확장>

이러한 유사성 인지 능력을 통해 의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개념영역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는 언어 지식이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나 관습적 지식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인체어휘가 의미 확장을 이루는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

2.3 의미 확장의 방향

의미 확장은 원형의미의 용법을 다른 ‘국면(face)’에 적용한 것이다. Heine (Heine.et.al, 1991: 48)는 개념 영역의 일반적인 확장 방향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사람 > 대상 > 행위 > 공간 > 시간 > 질

이는 개념이 비유적으로 확장될 경우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 ‘활동’, ‘공간’, ‘시간’, ‘질’의 순서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개념 영역이 확장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미 확장 양상을 나눌 수 있다⁹⁾.

첫째, 사람 → 짐승 → 생물 → 무생물의 확장

둘째, 구체성 → 추상성의 확장

셋째, 공간 → 시간 → 추상의 확장

넷째, 물리적 → 사회적 → 심리적 확장

다섯째, 일반성 → 비유성 → 관용성의 확장

위와 같이 의미 확장의 원리는 ‘사람, 구체성, 공간, 물리적, 일반성’ 등을 중심으로 한 원형의미에서 의미 확장을 이루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의어가 형성된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한·중 인체어가 인간의 인접성, 유사성 인지 능력을 통해 어떻게 의미가 확장되는지를 살펴보겠다.

9) 임지룡, 앞의 논문, p.250.

3. 한·중(韓中)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

한 낱말이 다양한 의미들을 가질 때 그 각각의 의미들은 임의적이고 무질서하게 확장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작용에 따라서 원형의미(중심의미)에서 파생의미(주변의미)로 체계적으로 구조화 된다. 그리고 확장된 의미들은 하나의 범주를 이룬다.

이 장에서는 한·중 인체어가 인간의 인지 작용 즉, 인간의 인접성 인지 능력과 유사성 인지 능력에 의해 인체어의 원형의미로부터 어떻게 확장되며 그 양상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3.1. 머리-頭·腦·首

‘머리’는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의 여러 국면으로 이루어지는데 형태면으로는 인체의 가장 앞쪽 윗부분에 해당하고, 구성면으로 뇌, 두개골, 두피, 머리카락, 고개 따위로 이루어졌으며 기능면으로 지적 능력을 수행한다.

이것을 ‘머리’의 원형의미로 하여 각각의 국면에서 어떻게 의미가 확장되는지 살펴보겠다.

3.1.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의 부분으로서 ‘머리’는 그 형태면에서 사람의 가장 위쪽 부분에 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이룬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되어 조직이나 단체에서 위쪽에 있는 사람, 즉 ‘우두머리’를 의미하게 된다. 한·중 양 언어에서 ‘머리’가 [우두머리]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두머리]

- 머리: 단체의 머리 노릇을 하다, 우두머리, 코머리¹⁰⁾ ...
- 头: 头儿(두목) 头头脑脑(지도자급) 把头(보스) 头子(우두머리) 头目(두목) 头领(수령) 巨头(우두머리) 头家(노름판의 주인) 班头(두목) 领头人(리더) 头人(주장) 蛇头(밀입국 알선 조직의 두목) 坑头(광부의 우두머리) 炉头(제련소 우두머리) 揽头(사무 책임자) 头柜(총지배인) 头灶(주방장) 庄头(소작인의 우두머리) 丐头(거지 두목) 团头(거지 등 천민 집단의 우두머리) 笼头(감옥 수감자 중의 우두머리) 孩子头(儿)(골목대장) 带头人(리더) 封建把头(보스) 头面人物(거물) 贼头儿(도둑의 우두머리) ...
- 脑: 头头脑脑(지도자급) 首脑(영도자) 头脑(지도자) 大头脑(옛날, 외국인 경영의 방직 공장에서의 중국인 작업장 반장) ...
- 首: 为首(우두머리로 하다) 会首(대표자) 贼首(도둑의 우두머리) 盗首(도적 두목) 首长(최고 지도자) 首领(수령) 魁首(괴수) 乱首(난적(亂賊)의 괴수) 首辅(재상) 元首(군주) 首恶(주모자) ...

중국어의 경우 ‘머리’에 대응하는 낱말로 ‘头, 脑, 首’가 쓰이는데 각각의 낱말 모두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체어 ‘머리’에서 [우두머리]로 의미 확장이 되는 것은 머리의 원형의미에서 형태면 즉, 인체의 ‘윗부분에 위치한다.’는 특성이 조직이나 단체에서의 ‘윗부분에 있는 사람’과 유사성이 지각되어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중국어의 경우 인체어 ‘머리’로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어휘들이 ‘头儿, 魁首, 首领, 首脑, 头领, 头目, 头脑, 头子, 头头儿, 元首’등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어휘가 많은 것은 문화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에서 동의어는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표현 개념, 지시 대상에 따라 다양한 동의어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인체기관 어휘들은 의미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같은 뜻을 갖는 어휘라 할지라도 감정 색채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头头儿, 头目, 头子’는 그 의미는 ‘우두머리’로 같다. 그러나 ‘头头儿’은 찬양, 칭찬 따위의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头子’는 험뜯거나 비방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头目’는 비교적 중립적인 색채의 어휘이다.¹¹⁾

10) 고을 관아에 속했던 우두머리 기생, 弦首.

11) 이현옥(2003), “汉语人体词语研究”, 南京大学 박사학위논문, p.125.

또 인체의 윗부분이라는 의미자질은 사물에게 적용되어 사물의 윗부분을 지칭하는데도 사용된다. 한·중 양 언어에서 그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윗부분]

- 머리: 저만치서 돌의 머리만 보였다, 장도리의 머리 부분, 기둥머리, 지갯머리, 산머리, 우두머리¹²⁾, 꼭두머리, 누에머리¹³⁾, 관머리, 갓머리¹⁴⁾, 암술머리, 수술머리, 음표머리 …
- 头: 桅头(돛대의 끝) 树头(나무 윗부분) 尽上头(맨 위) 墙头(담 벽 꼭대기) 锤头(쇠망치의 머리 부분) 头顶(머리 꼭대기) 顶头(정상) 上头(위쪽) 浪头(파도의 꼭대기) 柱头(기둥머리, 암술머리) 被头(이불깃) 斧头(도끼머리) 符头(음표머리) 案头(탁자 위) 肩头(어깨 위) 山头(산봉우리) 城头(성벽 위) 天头(책 페이지 윗부분의 공백) 字头(두문자, 한자 부수의 윗머리) …
- 脑: 山脑(산꼭대기) …
- 首: -

인체어 ‘머리’가 사물의 윗부분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인체에서 ‘윗부분’이라는 머리의 의미자질과 사물의 ‘윗부분’의 의미자질이 유사하다는데 인간의 인지 능력이 작용하여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头·脑·首’중에서 ‘脑’의 경우 ‘山脑’의 예가 보이긴 하지만 [윗부분]의 의미자질을 갖는 낱말은 ‘头’인 것으로 보인다.

‘위-아래’의 수직 개념을 ‘앞-뒤’의 수평 개념으로 바꾸었을 때 ‘위’의 개념은 ‘앞’의 개념에 대응된다. 따라서 [윗부분]의 의미자질은 [앞부분]의 의미자질을 가질 수 있다. 한·중 양 언어에서 머리가 [앞부분]을 의미하는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앞부분]

- 머리: 그는 달려오는 차 머리에 치였다, 뺏머리, 침대머리, 도끼머리, 들머리¹⁵⁾, 물머리 …

12) 나무 따위의 맨 꼭대기.

13) 산세가 누에 대가리 모양으로 쭉 솟은 산꼭대기.

14) 한자에서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부수.

- 头: 眉头(미간) 车头(차의 앞부분) 头灯(자동차 전조등) 床头(침대 머리맡)
词头(접두사) 船头(벃머리) 头门(정문) 庄头(마을 어귀) 村头(마을 어
귀) 桥头(다리 어귀) ...
- 脑: -
- 首: 首页(초기 화면) 书首(책·글 따위 서문) 门首(문전) ...

중국어의 경우 ‘头·首’에는 [앞부분]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는데 비해 ‘脑’에는 [앞부분]의 의미자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앞부분]의 의미자질은 시간적으로 [처음]으로 확장된다.

[처음]

- 머리: 머리도 끝도 없이 일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 곡의 머리 부분은 좀 우
울하다, 첫머리, 말머리, 머리공, 남은 길을 재촉하여 켜켜할 머리에 겨우
중심사에 당도하였다, 해질머리, 찬바람머리¹⁶⁾, 생량머리¹⁷⁾, 해토머
리¹⁸⁾, 환절머리¹⁹⁾ ...
- 头: 头上末下(최초, 처음으로) 少头缺尾(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从头至尾(처
음부터 끝까지) 挡头阵(전쟁에서 선두에 나서다) 掐头去尾(거두절미하
다) 从头到脚(머리끝에서 발끝까지) 龙头蛇尾(용두사미) 彻头彻尾(철두
철미) 头三抢儿(처음 임무) 头回生, 二回熟(첫 번째는 서투르지만 두 번
째는 익숙해 진다) 百事头难(모든 일은 처음이 힘들다) 万般起头难(무슨
일이든 처음이 힘들다) 头儿上(처음 최초) 火车头(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 것) 头趟车(첫차) 头班车(첫차) 动头(시작하다) 头轮(순번의 맨 처
음) 开头(시초) 话头(말머리) 头通(첫 음악) 头矢(첫 번째 난관) 一起头
(시작부터) 头罗(밀가루 따위를 첫 번째로 체질한) 头茬(그 해의 첫 번째
작물) 历头(연초) 头儿(기점, 시작) 搭头(시작하다) 起头(처음) 头生(초
산) 头前(선두) 头年(첫 해) 头行(첫 줄) 挑头(먼저 말을 꺼내다) 先头
(선두) 月头儿(월초) 头秋(초가을) 头婚(초혼) 头尾(처음과 끝) 初头(처
음) 头天(첫 날) 劈头(맨 먼저) 头麻(맨 처음 벤 삼) 头伏(초복) 头大(만
이인) 头桌饭(신혼부부가 최초로 마주앉아 하는 식사) 头道(첫 번째) 头
遭(제 1회) 头版(신문의 제 1면) 头批(제 1조) 头次(제1회) ...

15) 책이나 긴 글의 앞부분.

16) 가을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17) 生凉머리: 초가을로 접어들어 서늘해질 무렵.

18) 解土머리: 얼었던 땅이 녹아서 풀리기 시작할 때.

19) 换节머리: 철이 바뀔 무렵.

· 脑: -

· 首: 首发(처음 발행하다) 首夺(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다) 首难(맨 먼저 난을 일으키다) 首时(봄·여름·가을·겨울 각 계절의 첫 시기) 首当其冲(맨 먼저 공격을 받거나 재난을 당하다) 首报(제일 먼저 출원(出願)하다. 맨 먼저 신고하다) 首岁(음력 정월(正月)) 首屈(제1차, 제1기) 首战(최초의 전투) 首创(창시하다) 首(班)车(첫차) 首战告捷(첫 전투에서 승리하다) ...

중국어 ‘脑’의 경우 [앞부분]이라는 공간적 의미자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시간적 의미자질로 확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상 [처음]이라는 의미자질은 추상적으로 확장되어 [최고, 제일]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다. 한·중 양 언어에서 머리가 [최고, 제일]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고, 제일]

· 머리: -

· 头: 兴头上(흥이 절정에 달할 무렵) 独占鳌头(장원 급제하다) 头筹(1등상) 头条新闻(톱뉴스) 拳头产品(제1류의 제품) 重头货(주요 상품, 인기 상품) 拔头筹(첫 경기에서 승리하다) 头路货(일등품) 头贡(최고급품) 头号(최고급의) 头行(필두, 제1등) 头名(수석) 拿头(1위를 차지하다) 头彩(복권의 1등상) 头奖(추첨의 일등상) 头顶头(최상의) 头版头条(톱기사) 头挑(특별히 고른 상급품) 头等(제 1등의, 최상의) ...

· 脑: -

· 首: 首选(문어)(장원으로 급제하다) 赏首(문어)(최고상을 받다) ...

한국어 ‘머리’의 경우는 [처음]이라는 시간적 의미자질에서 [최고, 제일]이라는 추상적 의미자질로 확장되고 있지 않음에 비해 중국어 ‘头·首’는 ‘시간→추상’으로 확장되어 [최고, 제일]의 의미자질을 획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체어 ‘머리’는 사람의 몸 전체에서 봤을 때 끝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머리는 [끝부분]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다. 한·중 양 언어에서 인체어 ‘머리’가 [끝부분]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끝부분]

- 머리: 고물머리²⁰⁾, 눈머리²¹⁾ ...
- 头: 没头(끝이 없다) 天尽头(하늘의 끝) 尽头(제일 바깥) 尽头牙(사랑니)
没个头(끝이 없다, 그지없다) 顶头灰(담배 끄트머리의 재) 顶头门儿(골목
으로 들어서면서 마주치는 맨 끝집) 树根头(나무 밑동) 白菜头(배추 뿌
리) 草乌头(식물의 뿌리) 到头(정점에 이르다) 顶头(맨 끝) 方头儿皮鞋
(앞 끝이 모가 난 가죽신) 檐头(처마 끝) 纫头(바늘귀에 꿰는 실의 끝머
리) 东头(동쪽 끝) 西头(서쪽 끝) 南头(남쪽 끝) 索头(밧줄의 끝) 棍头
(막대기 끝) 竹头(대나무 끄트러기) 毛头(창끝) 枪头(창끝) 矛头(창끝)
箭头(화살촉) 刀头(칼날) 梢头(나뭇가지의 끝) 尖头(뾰족한 끝) 秤头(저
울대의 끝) 称头(저울대의 끄트머리) 绳头(밧줄의 끄트머리) 灯头儿(램
프의 불꽃 끝) 火头(불꽃) 香头儿(선향 끝머리) 镞枪头(납창의 끝) 针头
(주사 바늘) ...
- 脑: -
- 首: -

[끝부분]을 공간상에서 보면 가장자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끝부분]이라는 의미
자질은 공간상에서 [가장자리]라는 의미자질로 확장될 수 있다. 다음은 인체어
'머리'가 [가장자리]의미를 갖는 예이다.

[가장자리]

- 머리: 논머리, 밭머리, 상머리, 책상머리, 밥상머리 ...
- 头: 毛头(주조물 등의 가장자리) 岩头(바위 모서리) 地头(논·밭의 가장자리)
田头(밭머리) 江头(강가) 弯头(길모퉁이) 炕头(온돌 아랫목, 가장자리)
方头(끝이 네모진 것) ...
- 脑: 地脑(논머리, 밭머리) ...
- 首: -

인체어 '머리'가 [가장자리]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다는 것에 관한 앞선 연구를
보면 논머리, 밭머리, 상머리에서 '머리'가 갖는 의미자질을 [앞부분]으로 보는 견
해²²⁾도 있으나 논, 밭, 상(床) 등은 앞부분, 뒷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네면, 또는

20) 배 뒤쪽의 끝부분.

21) 눈 안쪽 끝부분.

22) 이을환·이용주(1964), 심재기(1982), 남성우(1985), 홍사만(1993).

둘레를 갖는다는 점에서 [가장자리]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²³⁾를 따르고자 한다.

[끝부분]에서 [가장자리]로 의미가 확장되는 것은 ‘地脑(논머리, 밭머리)’가 방언으로 사용되는 예를 제외하면 한·중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끝부분], [가장자리]라는 의미자질은 본래 구성의 중심이 되는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을 의미한다. 이에 구성의 중심에서 벗어난 [나머지, 조각]과 유사성이 인지되어 다음과 같이 의미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조각]

· 머리: 자머리²⁴⁾ ...

· 头: 头头脑脑(부스러기) 筋头麻脑儿(쓸모없는 물건) 厨头灶脑(자질구레한 부엌일) 烟卷头儿(담배꽂초) 蜡头儿(몽당 초) 肉头儿(자르고 남은 고기 부스러기) 尺头儿(옷감의 자투리) 棉纱头(솜 부스러기) 头头件件(남김 없이 모두) 柴头(나무토막) 搭头(儿)(부속물, 덤) 布头(천 조각) 纸头(종이 조각) 树头(나무토막) 条头(잘라낸 토막) 砖头(벽돌 조각) ...

· 脑: 葱头儿, 蒜脑儿(야채를 다듬어 낸 찌꺼기) 头头脑脑(부스러기) 厨头灶脑(자질구레한 부엌일) 头疼脑热的(대수롭지 않은 잔병) 针头线脑(자질구레한 일상용품) ...

· 首: -

중국어 ‘脑’의 경우 [끝부분], [가장자리]의 의미자질을 갖지 않는데 비해 [나머지, 조각]의 의미자질은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머지, 조각]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 ‘头’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1.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머리’는 그 역시 머리카락, 두피, 두개골, 뇌 등의 다른 여러 세부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인체어 ‘머리’가 원형의 미에서 인간의 인접성 인지 능력에 의해 ‘부분에서 전체’로, 혹은 ‘전체에서 부분’

23) 이경자(1980), “신체어 ‘머리’의 합성”, 『인문과학연구소 연문집』, 7-2호, 충남대학교, p.33.

24) 천이나 줄 따위를 잘 때, 자의 길이보다 조금 넉넉하게 남긴 부분.

으로 의미 전이가 일어나는 예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흔히 ‘나 오늘 머리 했어’, ‘머리 좀 잘라야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에 쓰인 ‘머리’를 인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머리의 원형의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는 인체의 부분인 ‘머리’로서 다시 그 머리의 한 부분 ‘머리카락’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전체로서 부분을 지칭하고, 부분으로서 전체를 지칭하는 인접성 인지 능력에 따른 것인데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어에만 있는 것이 아닌 언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중국어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首’의 경우 [머리카락]으로 의미 확장이 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머리카락]

- 머리: 머리를 하다, 머리를 깎다, 머리를 감다, 머리를 자르다, 머리를 빗다, 머리를 기르다 …
- 头: 做头发(머리를 하다) 分头(가르마를 타다) 捋头儿(머리를 다듬다) 剃头(머리를 깎다) 梳头(머리를 빗다) 掠头发(머리를 쓸어 올리다) 推头(머리를 밀다) 头套(가발) 通头(머리를 빗다) 留头(머리를 기르다) 剪头(머리를 자르다) 白云头(탈모증으로 머리카락이 빠진 머리) 蓬头历齿(흐트러진 머리털과 성긴 이) 头如蓬葆(머리가 흐트러져 더부룩하다) 粗服乱头(단정치 못한 복장과 흐트러진 머리) 乱头粗服(부스스한 머리에 허름한 옷차림) 蓬头垢面(흐트러진 머리와 때가 낀 얼굴) 披头散发(머리를 풀어헤치다) …
- 脑: 光脑袋 扫脑儿 光脑瓜儿 秃脑袋 瓜儿(대머리) …
- 首: -

이 경우 한·중 양 언어에서 ‘머리카락’, ‘头发(머리카락)’보다는 ‘머리’, ‘头’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머리’가 [머리모양]을 나타내기도 한다.

[머리모양]

- 머리: 곱슬머리, 단발머리, 까까머리, 대머리, 상고머리, 가랑머리, 상양머리, 더벅머리, 어여머리, 뚜꺼머리²⁵⁾, 바둑머리²⁶⁾, 종종머리, 민머리 …

25) 머리털을 층이 지게 잘못 깎아서 뚜껍을 덮은 것처럼 된 머리.

- 头: 头式(머리모양) 运动头(스포츠형 머리) 留分头(하이칼라 머리) 大包头(뒤로 길게 땀은 남자 머리) 秃头秃脑(대머리) 葫芦头(까까머리) 旗头(만주족 여자들의 틀어 올린 머리) 光葫芦头(대머리) 背头(올백 머리) 蓬头(흐트러진 머리) 平头=板刷头=学士头(상고머리) 光头=秃头(대머리) 满留头(머리카락을 전부 기른 머리) 髡头(터부룩한 머리) 八字头(8자형 머리) 游泳头(파마한 머리) ...
- 脑: -
- 首: -

인체어 ‘머리’로 [머리모양]을 지칭할 때, 중국어 ‘脑’가 쓰여 [머리모양]을 나타내는 예가 없는 것이 특이한데 이는 위 항목에서 ‘脑’가 모두 ‘대머리’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머리’가 외부적으로 ‘머리카락’과 인접해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두개골’, ‘뇌’와 인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머리’가 [두개골], [뇌]의 의미자질을 갖는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두개골]

- 머리: 머리가 크다, 머리가 작다. 머리가 깨지다 ...
- 头: 撕头掬鬓(머리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다) 头破血流(머리가 깨져 피가 흐른다) 肥头大耳(인체가 발육한 모양) ...
- 脑: 脑盖子(머리뼈) 脑颅(두개) ...
- 首: -

[뇌]

- 머리: 머리 수술을 받다.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실험하다 ...
- 头: -
- 脑: 脑子(뇌) 脑袋(뇌) 大脑(대뇌) 脑炎(뇌염) 间脑(간뇌) 脑脊髓炎(뇌척수막염) 大脑皮层(대뇌피질) 脑震荡(뇌진탕) 脑积水(뇌수종) 小脑(소뇌) 脑儿(식용 동물의 뇌수) 脑膜炎(뇌막염) 脑溢血=脑充血=脑出血(뇌출혈) 前脑(전뇌) 中脑(중뇌) 后脑(후뇌) 脑膜(뇌막) 脑脊液(뇌척수액) ...
- 首: -

인체어 ‘머리’로 그 내부로 인접한 [두개골], [뇌]를 지칭하는 경우는 중국어

26) 어린아이의 머리털을 조금씩 모습을 지어 여러 갈래로 땀은 머리.

‘腦’가 [뇌]를 지칭하는 예가 눈에 띄게 많은데 이는 중국어 ‘腦’ 자체에 ‘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서 머리를 뜻하는 ‘腦子, 腦筋, 脑袋(머리)’로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람의 ‘머리’는 또 동물에게 적용되어 동물의 ‘머리’를 지칭하는 데도 쓰인다. 이는 사람이 눈, 코, 입, 귀, 뇌, 두개골 등으로 구성된 부분과 동물의 눈, 코, 입, 귀, 뇌, 두개골 등으로 구성된 부분이 유사하다고 인지되어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한·중 양 언어에서 그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물의 머리]

- 머리: 돼지머리, 소머리 …
- 头: 虎头(범의 머리) 猪头(돼지 머리) 羊头(양의 머리) 狗头(●개 머리→멍청한 녀석)²⁷⁾ 烂羊头(●썩어 문드러진 양대가리→무능한 사람) 鸡头鱼刺(●닭대가리와 생선 가시→하찮은 인물) 牲头(제물로 쓸 가축의 대가리) 鱼头(생선 대가리) 蝇头(파리의 머리) …
- 腦: -
- 首: -

인체어 ‘머리’가 동물의 ‘머리’ 부분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한국어 ‘머리’와 중국어에서는 ‘头’만이 동물의 머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중국어의 경우 어류나 곤충류에까지 적용되어 그 범위가 넓고, 한국어의 경우 동물의 머리 부분을 지칭할 때는 ‘대가리’라는 비속어 표현을 따로 두어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어의 경우 ‘头’가 동물의 수를 헤아리는 양사로 사용 된다²⁸⁾.

一头牛(소 한 마리)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도 중국어 양사 ‘头’에 해당하는 동물의 수를 헤아리는 단위 ‘마리’가 ‘頭, 首, 가축·詩의 수를 세는 단위’의 의미를 공유하다가 ‘머리(頭,

27) ●는 직역, →는 확장 의미를 나타낸다.

28) 이 밖에서 중국어 ‘头’는 머리 모양과 유사한 마늘이나 비너를 세는 단위로도 사용된다. 两头蒜(마늘 두 통), 一头簪子(비녀 한 개).

頭髮)’와 ‘마리(首)’로 분화되었다고 밝히고 있어²⁹⁾ 현대 한국어에서 인체 부분 ‘머리’와 동물을 세는 단위 ‘마리’는 어원적으로 의미의 유연성이 개입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인체어 ‘머리’가 동물의 수를 세는 양사로서의 쓰임³⁰⁾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³¹⁾.

위의 항목이 전체로서 ‘머리’가 부분인 ‘머리카락’을 지칭한 경우라면 부분으로서 ‘머리’로서 전체인 ‘사람’을 지칭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사람]

· 머리: -

· 头: 对头(원수, 상대, 배우자) 偏头(옹고집쟁이) 傻头(심술쟁이) 滑头(교활한 사람) 挑头(짐꾼) 奸头(음흉한 사람) 下头(하인) 大晕头(팔푼이) 老实头(폐기 없는 사람) 作头(머슴) 撇老头子(고집 센 늙은이) 大头(얼뜨기) 毛头小伙子(젊은이) 小滑头儿(뻔질뻔질한 놈) 小老头儿(겉늙은 사람) 馋骨头(걸신들린 사람) 横骨头(횡포한 인간) 坏骨头(나쁜 놈) 软骨头(죽대 없는 사람) 力巴头(문외한) 离把头(푹내기) 赌头(물주) 馘头(후원자) 靠头(믿고 의지하는 사람) …

· 脑: 大脑袋(세상 물정에 어두운 호인) 算盘脑袋(구두쇠) 窝头脑袋(궁상스러운 사람) 土头土脑(시골뜨기) …

· 首: -

한국어의 경우 인체어 ‘머리’로 [사람]을 지칭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는데 비해 중국어에는 상당수 확인된다. 그런데 중국어 ‘头’로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馘头(믿는 사람, 후원자), 靠头(믿고 의지하는 사람)’정도를 제외하면 그 의미가 ‘놈, 자식, -꾼’ 등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 사용하는 예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头’가 동물의 머리 부분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이 다시 사람에게 전이 되면서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9)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p.142.

30) 문법화의 세 단계 곧 의존 명사화 단계→접어화 단계→어미, 조사, 접미사화 단계 중에서 제 1단계인 의존명사화 단계에 해당되다.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p.52.

31) ‘마리’는 동일 어근에서 갈라진 동의어로서 의미 분화를 이룬 ‘마리’와 ‘머리’는 의미 분화와 문법화 단계를 거쳐 형성된 의존 명사로 본다. 수량 단위 의존 명사로서의 ‘마리’는 자립 명사 ‘마리’로부터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 변화한 것인데 이는 동일 어근 ‘마리’와 ‘머리’가 동의 경쟁에서 ‘마리’가 탈락했음과 아울러 의존 명사로서만 쓰임을 유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배도용(1999), “머리 관련 어휘의 어휘 변화”, 「한국어 의미학」, 4호, p.322.

3.1.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며 인간의 인체 기관 중에서도 머리가 갖는 기능이다. 인간임을 특징짓는 머리가 기능면에서 어떻게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능]

- 머리: 머리가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
- 头: 有头有脑(머리가 똑똑하다) 猎头(기업의 고급 인재를 물색하다) ...
- 脑: 脑筋好(머리가 좋다) 脑筋坏(머리가 나쁘다) 脑性(기억력) 买脑(고임금으로 고급 기술 인력을 유치하다) 借脑袋(외부로부터 인재를 끌어들여 쓰다) 脑力劳动(정신노동) ...
- 首: -

[사고]

- 머리: 머리가 굳다, 머리가 깨다, 머리가 짝 차다 ...
- 头: 笨头笨脑(머리가 굳다) ...
- 脑: 脑子迟钝(머리가 굳다) 脑子开窍(머리가 깨다) 死脑筋(융통성이 없다) 换脑筋 换脑(사고방식을 바꾸다) 老脑筋(낡은 생각) 满脑子(머릿속이 짝차 있음) 乡下脑颞(시골뜨기 생각) ...
- 首: -

[지혜]

- 머리: 머리가 잘 돌아가다, 머리를 굴리다, 머리를 쓰다, 머리를 짜내다 ...
- 头: -
- 脑: 脑子机灵(머리가 잘 돌아다) 转脑子(머리를 굴리다) 动脑筋(머리를 쓰다) 绞脑汁(머리를 짜내다) ...
- 首: -

[정신]

- 머리: 머리가 가볍다,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아찔하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를 식히다, 골머리를 앓다, 머리가 이상하다, 머리가 답답하다 ...
- 头: 头昏(머리가 아찔하다) 头脑昏沉(머리가 무겁다) 晕头巴脑=晕头搭脑=晕头打脑(머리가 어질어질한 모양) 疯头疯脑(머리가 이상해지다) ...

- 脑: 上脑(머리가 아프다) 绷脑筋(정신을 바짝 차리다) 伤脑筋(골머리를 앓다) 闷头闷脑(머리가 답답하다) 换脑子(머리를 식히다) ...
- 首: -

[감정]

- 머리: 머리에 열나다 ...
- 头: 心头火起(화가 치솟다) 头火(흥분되다) 干头干脑(감정이 메마르다) ...
- 脑: 脑袋疼(골치가 아프다, 불쾌하다) ...
- 首: -

인체어 ‘머리’의 원형의미에서 기능적 측면의 의미 확장은 한·중 양 언어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어의 경우 ‘头’와 ‘脑’가 함께 쓰이는 예가 많으며 ‘首’에는 머리의 기능적 측면에서 확장한 예를 찾을 수 없었다.

중국어의 경우,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머리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의미자질과 앞서 살펴본 ‘머리’의 형태적 측면에서 확장된 의미자질 중 [처음]이라는 의미자질이 결합하여 사건의 [실마리, 단서]의 의미자질을 획득하게 된다.

[실마리, 단서]

- 머리: -
- 头: 头头脑脑(단서) 粗有头绪(약간의 실마리가 잡히다) 有头绪(운락이 잡히다) 头角(실마리, 단서) 头项(실마리, 단서) 有头儿(실마리가 잡히다) 没头(儿)没脑(儿)(단서가 없다, 이유가 없다) ...
- 脑: 头头脑脑 头脑 没头没脑 ...
- 首: -

인체어 ‘머리’가 [실마리, 단서]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은 기능적 측면에서의 의미자질과 형태적 측면에서 확장한 의미자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首’의 경우 머리의 기능적 측면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마리, 단서]의 의미자질 역시 갖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어 ‘头’는 [가치]를 나타내는 파생접미사³²⁾로 사용된다.

32) 문법적으로 파생접미사는 허사로 어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예로든 어휘는 인지의미론적 입장에서 ‘头’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기본의미를 바탕으로 확장된 의미로서 어휘의 의미가 다소 남아 있다고 본다.

念头儿(생각할 가치) 吃头儿(먹을 만한 것) 看头儿(볼 만한 것) 学头儿(배울만한 가치) 想头儿(희망) 说头儿(말 할만한 가치) 活头儿(살만한 가치) 过头儿(살 맛) 熬头儿(고생한 보람) 盼头儿(희망) …

이에 비해 한국어 ‘머리’는 기능적 측면의 의미자질을 속되게 표현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³³⁾

정신머리, 버르장머리, 인정머리, 소갈머리, 체신머리, 넌덜머리…

3.2. 얼굴 - 面·臉

‘얼굴’은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의 여러 국면으로 이루어지는데 형태면으로는 사람의 머리 앞쪽 부분으로 눈, 코, 입, 귀, 이마, 턱 따위로 구성되며 기능면으로 보면 사람의 감정 상태를 표정으로 나타낸다.

이것을 ‘얼굴’의 중심의미로 하여 각각의 국면에서 어떻게 의미가 확장되는지 살펴보겠다.

3.2.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얼굴’은 사람의 머리에서 앞쪽 부분으로 사람의 외형을 말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어떻게 생겼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우선 설명해 줄 것이다. 또한 ‘그 사람 좀 보여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다른 어떤 부위를 봤을 때보다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처럼 ‘얼굴’은 한 사람의 모습을 대신할 수 있는 외형이라고 볼 수 있다. ‘얼굴’이 갖는 이러한 형태면에서의 의미자질은 사물의 겉면과 그 유사성이 인지되어 사물의 겉면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얼굴’이 사물의 [겉면]을 지칭하

33) 우형식(1988), “신체어의 의미론-어휘 의미론적 분석 시도”, 『연세어문학』, 21호, 연세대학교, p.308.

는데 사용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겉면]

- 얼굴: 脸(34)면(面) 표면, 지면, 화면, 벽면 ...
- 面: 面值액면(가격) 舱面(갑판) 团桌面(원탁면) 炕面砖(구들장) 柜面儿(카운터 위) 净面儿(무늬가 없는 표면) 净面儿(대패로 목재의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하다) 衬面(표면 덧바르기) 面层(표층) 双面(양면) 劈开面(쪼개져서 갈라진 면) 创面(상처의 표면) 额面(액면) 跗面(발등) 书面(책의 표지) 纸面(지면) 面饰(건축물의 외관장식) 画面(화면) 桌面(테이블의 윗면) 圆桌面(원탁판) 桥面(다리 바닥) 展开面积(건축 면적) 面宽(집의 넓이) 面积(면적) 椭圆面(타원면) 锥面(원뿔면) ...
- 脸: 敞脸儿表(유리 뚜껑이 있는 회중시계) 刀脸(칼날과 칼등 사이의 면) 鞋脸(구두의 잔등) 前脸(건물·가구 등의 앞부분) 袜脸儿(버선등의 솔기) 贴脸(문얼굴에 대는 나무판자 또는 나무때기) ...

[공간적 겉면]

- 얼굴: 面(面): 정면, 장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다 ...
- 面: 对面(맞은 편) 门面(상점 앞) 铺面(점포 앞) 辟面(정면) 正场面(공개인 자리) 大场面(공개 장소) 桌面儿上(공개석상) 正面(정면) ...
- 脸: 正脸(정면) 泼头盖脸=劈头盖脸=劈头劈脸(정면에서) ...

[추상적 겉면]

- 얼굴: 面(面):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형태적인 면, 기능적인 면 ...
- 面: 负面(부정적인 면) 两面(양면) 侧面(다른 방면) 单面(일방적인 면) 层面(단계와 방면) 输面(패배 가능성) 赢面=胜面(이길 가능성) ...
- 脸: -

중국어 ‘面·脸’은 사물의 [겉면]을 지칭하는 의미자질을 갖고 있는데 비해 한국어 ‘얼굴’은 사물에 관해서 [겉면]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경우 한자어와 고유어가 함께 쓰이는데 그 쓰임에 있어서 고유어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한자어 ‘面’은 사물의 겉면을 지칭할 때 사용하여 구분되어 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34) ‘脸’표시는 그 항목에 해당하는 다른 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즉 위 표에서 한국어에서 [표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脸한자어 ‘面’을 사용하여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중국어의 경우 ‘面’은 ‘사물→공간→추상’까지 그 적용 영역이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음에 비해 ‘脸’은 ‘사물→공간’으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어 ‘面’의 경우 사물의 겉면을 지칭하는 것과 관련해 평평한 물체를 세는 양사로서도 사용된다.

一面镜子(거울 한 개)

两面旗子(깃발 두 쪽)

인체어 ‘얼굴’은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들어난 사람의 외적인 모습에서 추상화되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의 내적인 모습 즉, [체면, 명예]를 의미한다. 인체어 ‘얼굴’이 추상화되어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적 모습을 의미하는 예는 다음과 같이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체면, 명예]

- 얼굴: 얼굴을 보다, 얼굴을 더럽히다, 얼굴을 세우다, 얼굴이 서다, 얼굴을 들다, 얼굴을 들지 못하다, 얼굴에 먹칠 하다 …
- 面: 装体面(체면을 차리다) 场面话(사교적인 말) 挑门面(체면이나 유지하다) 撑场面(역지로 체면을 유지하다) 虚体面(겉치레) 门面话(겉치레 말) 买脸面(체면을 차리다) 开面(면목을 세우다) 颜面(체면) 脸面(체면) 体面(체면, 체통) 好虚体面(체면 차리기를 좋아하다) 壮场面=装门面=壮门面 硬装场面=遮场面=装头卖面(겉치레 하다) …
- 脸: 脸子(체면, 면목) 打脸(남의 체면을 깎다) 有脸(체면이 서다) 得脸(면목을 세우다), 破脸(체면을 돌보지 않다) 舍脸(체면을 돌보지 않다) 遮脸(체면을 유지하다) 脸小(평판이 낮다) 露脸(체면을 세우다) 要脸(체면을 중히 여기다) 脸面(체면) 全脸(면목을 세우다) 放脸(체면이 서다) 洒脸(체면을 잃다) 买脸(돈으로 체면을 유지하다) 靠脸(체면을 차리다) 给脸(체면을 세워 주다) 丢脸(체면이 깎이다) 傻脸(체면이 깎이다) 扫脸(면목을 잃다) 脏脸(체면을 손상하다) 圆脸(체면을 세우다) 蹭脸(체면을 손상시키다) 赏脸(체면을 보아 주십시오) 伤脸(체면을 손상하다) 抢脸(체면이 깎이다) 有脸皮(체면을 중시하다) 争脸(영광이나 영예를 얻어 체면을 세우다) 长脸(체면을 세우다) 头脸(체면) 顾脸(체면을 중시하다) 找胡脸(면목 없는 일을 저지르다) 买脸面(체면을 차리다) 抓破脸(서로 체면을 잃다) 找没脸(면목 없는 일을 하다) 漏脸(면목이 서다) …

반면 인체어 ‘얼굴’로 어떤 대상의 진면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상으로서 쓰이는 예는 한국어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돌·바람·여자는 제주도의 얼굴이다,
고려청자는 고려 시대 문화재의 대표적 얼굴이다

3.2.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얼굴’은 눈, 코, 입, 귀, 볼, 턱 따위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인접성 인지 능력은 공간상으로 인접해있는 것에 대해 전체로서 부분을, 또는 부분으로서 전체를 지칭하는데 이에 대해 인체어 ‘얼굴’로서 그 구성 부분인 눈, 코, 입 따위를 지칭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전체인 사람을 지칭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

- 얼굴: 얼굴을 내밀다, 얼굴을 보이다, 얼굴을 익히다, 새로운 얼굴 ...
- 面: 软面汤(칠칠치 못한 사람) ...
- 脸: 黑脸(교활한 사람) 狗脸(화를 잘 내는 사람) 白脸(새파란 젊은이) 驴脸(긴 얼굴의 사람) 嫌脸(사람을 싫어하다) 生脸(초면인 사람) 大白脸(교활한 사람) 薄脸皮(심약한 사람) 记脸子(얼굴에 점이 있는 사람) 小白脸(미소년, 기생오라비) 小头小脸儿(좀스럽게 생긴 용모) ...

인체어 ‘얼굴’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부분-전체’의 인접 지각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인체어 ‘얼굴’은 얼굴 위에 하는 [화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역시 ‘얼굴’과 그 위에 화장을 하는 행위가 인접해있다는 데서 인접성이 인지되어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화장]

- 얼굴: 얼굴을 고치다 ...
- 面: -
- 脸: 下脸(儿)(배우가 무대 화장을 지우다) 匀脸(얼굴 분장을 하다) 匀脸(얼굴에 분을 바른 뒤 손으로 문질러 고르게 하다) 开脸子(얼굴을 고치다) ...

사람을 외적으로 구성하는 요소가 머리, 얼굴, 팔, 다리 따위라면 내적인 구성 요소로서 [마음]을 들 수 있다. 인체어 ‘얼굴’은 부분으로서 전체를 지칭하여 [사람]의 의미자질을 가졌고, 또 사람에서 다시 그 내적 구성요소인 [마음]을 지칭하는 의미자질을 갖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마음]

- 얼굴: -
- 面: 面软=面柔(마음이 약하다, 어질다, 순하다) ...
- 脸: 脸软=硬脸(마음이 강하다, 감정이나 정실(情實)에 쉽게 끌리지 않다) 脸热(마음씨가 곱다) 唱白脸(몰인정하다) 唱红脸(관대하다) ...

한국어 ‘얼굴’은 [사람]이라는 의미자질에서 [마음]이라는 의미자질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비해 중국어 ‘面·脸’모두 ‘외적 부분→전체→내적 부분’으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체어 ‘얼굴’이 [사람]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해 ‘얼굴’은 [인간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

[인간관계]

- 얼굴: 얼굴이 좁다, 얼굴이 넓다 ...
- 面: -
- 脸: 背脸=掰脸=扭脸=别脸=转脸=掉背脸=翻脸无情=打掉脸儿(외면하다) ...

한국어 ‘얼굴’로 [인간관계]를 표현 하는 예는 그 폭이 좁고, 넓음에 관한 것인데 비해 중국어 ‘脸’의 경우 주로 ‘●얼굴을 돌리다→외면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중국어의 경우 ‘脸大’라고 하면 ‘●얼굴이 넓다→신용이 있다’라는 뜻이 되어 [인간관계]에서 [신용]으로까지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체어 ‘얼굴’은 또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만남]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만남]

- 얼굴: 얼굴 부딪히다, 얼굴을 마주하다, 얼굴 보자 ...

- 面: 面诉(만나서 하소연 하다) 面辞(만나서 작별 인사 하다) 覩面(얼굴을 맞대다) 面嘱(만나서 부탁하다) 面对(마주 보다) 面领(직접 받다) 面请(만나서 부탁하다) 面见(직접 만나다) 面罄(직접 만나 자세히 말씀드리다) 碰面(만나다) 三日两面(늘 만나다) 见面礼(초면인사) 面禀(직접 말씀드리다) 会面(만나다) 面荐(직접 만나서 추천하다) 面约(직접 만나서 약속하다) 面会(면회하다) 面叙(직접 만나 이야기하다) 面议(직접 만나서 의논하다) 面从(보는 앞에서만 복종하다) 面谀(면전에서 아첨하다) 面数(직접 만나 나무라다) 面恳(직접 만나 부탁하다) 面诘(면전에서 꾸짖다) 面订(만나서 계약하다) 面谈(면담하다) 面试(면접시험) 谋面(서로 알다) 面赵(만나서 돌려주다) 面陈(만나서 말하다) ...
- 脸: 脸生(면식이 없다) 熟脸儿(낯익은 사이) 磕头碰脸(종종 만나다) ...

‘얼굴’로 [만남]의 표현을 나타내는 예는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중국어 ‘面’의 경우 그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중국어 ‘面’은 [만나다]는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해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세는 양사로서도 쓰인다.

见过一面(한 번 만난 적이 있다)

3.2.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얼굴’이 다른 인체 부분에 비해 갖는 기능적 특성은 표정을 지음으로써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감정]

- 얼굴: 얼굴이 피다, 얼굴을 붉히다, 얼굴을 찌푸리다, 얼굴이 굳어지다, 얼굴 빛이 어둡다, 얼굴에 그늘이 지다, 얼굴빛이 환하다, 얼굴을 빛이 변하다, 얼굴빛이 흐려지다, 얼굴빛이 바뀌다 ...
- 面: 面门(얼굴 표정) 红光满面(득의만면하다) 春风满面(희색이 만면하다) ...
- 脸: 苦脸(수심에 가득 찬 얼굴) 哭脸(울상) 脸子(불쾌한 표정) 脸急(화를 잘 내다) 抹脸(얼굴빛을 바꾸다) 虎脸(엄한 표정을 짓다) 羞脸(수줍어하는 얼굴) 板脸(정색하다) 白脸(무뚝뚝한 얼굴) 寒脸(차가운 표정, 두려운 표정) 嗔脸(성난 얼굴) 愁脸(걱정스러운 얼굴) 热脸(열정적인 기색) 铁脸(굳은 표정) 搭拉脸(연짙은 얼굴) 脸红(부끄러워하다) 使脸子(불쾌한 표정)

정을 짓다) 红脸(얼굴을 붉히다) 沉脸(어두운 얼굴) 拉下脸(불쾌한 표정)
冷脸子(엄숙한 얼굴) 做嘴脸(귀찮은 표정) 寒着脸(냉담한 얼굴) 呆着脸
(멍한 얼굴) 耍脸子(성난 얼굴) 沉下脸(안색이 어두워지다) 愁眉苦脸(수
심에 가득 찬 얼굴) 硬着脸子(얼굴을 찌푸리다) …

얼굴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예는 한·중 양 언어 모두 다양하게 있으며
특히 색채 표현과 관련해 감정을 드러내는 점이 특이한데 한국어 ‘얼굴을 붉히
다’와 이에 관한 중국어 ‘红脸’이 모두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쓰이고 화가 난 상황
에서도 쓰이는데 이를 통해 색채 표현과 감정 표현이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눈-目·眼

인체어 ‘눈’은 형태면으로 얼굴에서 코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나뉘져 있으며 타
원형으로 눈동자, 눈앞, 눈초리, 눈꺼풀, 눈시울, 눈썹 따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
물을 보는 기능을 한다.

3.3.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눈’은 얼굴에서 코를 기준으로 양옆에 위치하며 그 형태는 둥그렇다.
이러한 형태적인 측면에서 유사성 인지 능력이 작용하여 인체어 ‘눈’의 의미가
확대되는 표현을 찾아보면 한·중 양 언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인체
어 ‘눈’과 유사성을 갖는 대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포]

气眼(기포, 통풍구멍) 鱼眼(끓는 물에서 일어나는 기포) …

[패인 자국]

辙眼儿(수레가 지나간 뒤에 패인 자리) …

중국어에서는 ‘气眼, 鱼眼’와 같이 인체어 ‘눈’을 사용해 [기포]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인체 부분 ‘눈’과 공기 방울의 동그란 형태가 유사하다고 인지된 데서 일어난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레가 지난간 뒤 패인 자리’라는 뜻의 ‘辙眼儿’도 역시 중국어에만 있는 표현으로 얼굴의 다른 인체 부분에 비해 눈이 패여 있는 형태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지각되어 생겨난 표현으로 보인다.

인체어 ‘눈’이 얼굴부위 인체어 중에서 작고, 움푹 패여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구멍]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다.

[구멍]

- 눈: 그물눈, 바둑판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점 ...
- 目: 网目(그물눈) ...
- 眼: 凿眼儿(구멍을 파다) 挖眼(구멍을 파다) 闷眼(한쪽이 막힌 구멍) 门眼(아파트 따위의 현관문에 있는 밖을 내다보는 구멍) 咳眼(그릇 따위에 생긴 작은 구멍) 针眼(바늘로 찌른 구멍) 筛眼(체 구멍) 钱眼(동전의 사각 구멍) 铆眼(리벳(rivet)을 박는 구멍) 沟眼(하수구) 弹眼儿(총탄 구멍) 锥眼儿(송곳으로 뚫은 구멍) 扣眼儿(단추 구멍) 耳朵眼儿(귓구멍) 窟窿眼儿(작은 구멍) 窗户眼儿(창호지가 찢어진 구멍) 眼儿(구멍, 굴) 炉眼(아궁이) 网眼(그물눈) 肚脐眼(배꼽) 鼻子眼(콧구멍) 虫眼儿(벌레 먹은 구멍) 毛缝眼(털구멍) 瓮眼儿(끈을 꿰어 매는 구멍) ...

인체어 ‘눈’이 [구멍]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데 대해 ‘바늘의 구멍’에 관한 한 · 중 양 언어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바늘귀’라 하여 인체 부분 ‘귀’로 [구멍]을 표현한데 비해 중국어에서는 ‘针眼(=针鼻)’라 하여 인체 부분 ‘눈’ 또는 ‘코’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인체어에서 확장된 의미자질이 공통적이라면 그것을 사물에 적용하는 관점은 나라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또한 [구멍]의 의미자질과 관련해 중국어 ‘眼’은 우물이나 구멍을 세는 양사로도 사용된다.

一眼井(우물 하나) ...

한국어에서 ‘그물눈’이나 ‘바둑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점’을 뜻하는 ‘눈’은 인체어 ‘눈’과 다른 단어 즉, 동음이의어로 분류되고 있는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眼’의 의미 항목으로 [구멍]이 포함되어 있다³⁵⁾.

이는 언어학적인 면에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별이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시 대상 사이의 유연성과 관련해볼 때 ‘그물눈’과 인체어 ‘눈’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눈’의 의미 항목으로 [구멍]을 첨가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에서 ‘눈금’을 의미하는 항목과, ‘식물의 눈’을 의미하는 항목 역시 형태적인 면에서 인체어 ‘눈’과 유사성이 지각되므로 인체어 ‘눈’과 다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인체어 ‘눈’은 인체 다른 부분에 비해 그 크기가 작아 [작다]의 의미자질을 갖는데 특히, 중국어 ‘目’만이 [조항], [목록]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점을 볼 수 있다.

[작다]

- 눈: 티눈, 발톱눈, 손톱눈 ...
- 目: -
- 眼: 报眼(신문의 제 일면의 신문사명 바로 옆의 작은 공간) 眼丝儿(대단히 작은 것) 铺眼儿(상점) 脚鸡眼(발에 생기는 티눈) ...

[조항]

- 눈: -
- 目: 细目(상세한 항목) 项目(항목, 사항) 栏目(신문·잡지 등의 난) 税目(세목) 条目(조목, 항목, 세목) ...
- 眼: -

[목록]

- 눈: -
- 目: 书目(도서 목록) 目次(목차) 节目(프로그램) 科目(과목) 题目(제목, 표제, 테마) 剧目(연극 제목) ...
- 眼: -

35) 인지의미론에서는 다의어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 까닭은 인간의 ‘인지’란 본질적으로 지각 내용이 유기적인 해석을 부여하는 것이며 기억의 부담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지룡(1996), “은유의 인지언어학적 의미 분석”, 『국어교육연구』, 28호, p241.

3.3.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눈’은 눈동자, 눈앞, 눈초리, 눈꺼풀, 눈시울, 눈썹 따위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눈과 인접한 각각의 부분을 지칭하는데 이는 전체로서 부분을 지칭하는 환유에 해당한다.

[눈 주위]

- 눈: 눈이 붓다, 눈을 굴리다, 눈에 풀칠하다, 눈이 시뻘겋다, 눈 붙이다, 눈이 뒤집히다 ...
- 目: -
- 眼: 眼睑(눈꺼풀) 献眼(각막을 기증하다) 眼帘(홍채) 眼线(아이라인) 眼眶(눈언저리, 눈가) ...

인체어 ‘눈’이 갖는 [눈동자]의 의미자질에서 추상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인체어 ‘눈’은 [중심, 요점]의 의미자질을 갖게 된다.

[중심, 요점]

- 눈: 바람의 눈, 태풍의 눈 ...
- 目: -
- 眼: 节骨眼儿(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시기) 钱花的眼上(돈을 긴요하게 쓰다) 眼儿(요소, 요점) 骨节眼(●뼈의 구멍→중요한 요점) ...

중국어 ‘目’의 경우 [눈동자]의 의미자질이 없어 [중심, 요점]의 의미를 갖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인체어 ‘눈’ [마음]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이는 인체어 ‘얼굴’이 [마음]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유사하게 확장된 경우로 인체 부분으로서 ‘눈’이 전체 [사람]의 의미를 갖고 다시 사람의 내적 부분, [마음]을 의미하게 되는 인접성에 따른 의미 확장으로 볼 수 있다.

[마음]

- 눈: 눈에 차다, 눈에 밝히다, 눈이 맞다, 눈에 거칠다, 눈 밖에 나다, 눈에 걸리다, 눈을 끌다, 제 눈에 안경, 눈에 선하다, 눈에 어리다 ...

- 目: 厌目(보기 싫다) …
- 眼: 顺眼(마음에 들다) 不顺眼(눈에 거슬리다) 看过眼儿(그럭저럭 만족하다)
眼缘(마음에 들) 不对眼(눈에 거슬리다 마음에 들지 않다) …

인체어 ‘눈’이 [사람]의 의미자질을 갖는다는 점과 관련해 중국어 ‘眼’의 경우 [교제]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眼皮宽=眼皮杂=眼宽=眼杂(교제가 넓다)

위의 예들을 보면, ‘눈꺼풀이 넓다, 복잡하다’에서 ‘교제가 넓다’는 의미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체어 ‘눈’이 [마음]의 의미자질을 갖는 점과 관련하여 인체어 ‘눈’으로 [사람]을 뜻하는 예로 사용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사람]의 의미자질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눈’이 다른 인체 부분과 구별되는 주요 기능은 시각 기관으로서의 구실이다. 이러한 시각 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자동차의 전조등의 구실과 그 유사성이 인지되어 [자동차 전조등]의 의미로 한국어 ‘눈’이 사용된다.

아반테의 눈은 고양이 눈 같다.
자동차의 눈이 탈곡장을 환히 비추었다.

‘자동차 전조등’에 대해 중국어는 ‘头灯’이 쓰이는데 이는 새로운 사물의 이름을 지을 때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한국어, 중국어 모두 기존 인체어를 사용하여 의미 범위를 넓히는 점은 공통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새로운 대상을 기존 대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작용한 인지 능력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의 경우 ‘자동차 전조등’의 기능적인 측면과 인체어 ‘눈’의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인지되어 명명한 것으로 보이고 중국어의 경우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인체어 ‘머리’와 유사성이 인지되어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시각 기관으로서 인체어 ‘눈’은 한국어, 중국어 모두 공통적으로 [시력]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시력]

- 눈: 눈이 나빠졌다, 눈이 잘 안 보인다, 눈을 잃다, 눈이 좋다 ...
- 目: 目击(목격하다) 极目(시력이 미치는 데까지 바라보다) 目测(시력 검사를 하다) 清目(눈이 좋아지다) 经目(한번 훑어보다) 过目(훑어보다) 纵目(눈 닿는 데까지 보다) 目瞽耳聩(눈멀고 귀먹다) ...
- 眼: 眼瞎(눈이 안보이다) 瞎眼(눈이 멀다) 眼钝(눈이 어둡다) 眼错(잘못 보다) 费眼(시력을 상하다) 岔眼(언뜻 잘못 보다) 输眼(잘못 보다) ...

이와 관련해 중국어 ‘眼’의 경우 눈으로 보는 횟수를 세는 양사로 사용된다.

看了一眼就走了(힐끗 한 번 쳐다보고는 갔다)

인체어 ‘눈’이 [시력]을 의미하는 것과 관련하여 눈이 가는 방향, 눈빛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선, 눈길]

- 눈: 눈이 시다, 눈을 굴리다, 눈이 가다, 눈을 피하다, 눈 감고 아옹 한다, 눈 돌 곳을 모르다, 눈이 멎다, 눈이 쏠리다, 눈을 끌다, 눈을 떼다, 눈에서 벗어나다 ...
- 目: 满目 侧目 惨目 驰目 绝目 动目 ...
- 眼: 眼热(부러워하다) 眼馋(눈독 들이다) 飞眼(추파를 던지다) 显眼(눈길을 끌다) 偷眼(훑쳐보다) 满眼(눈에 가득 차다) 贼眼(의심 많은 눈초리) 抬眼(눈길을 끌다) 扫眼(휘둘러보다) 眼风(힐끗 보는 시선) 眼锋(매서운 눈빛) 青眼(따사로운 눈길) 馋眼(욕정에 불타는 눈) 楞眼(시선을 돌리다) 眼红(눈에 핏발이 서다) 抢眼(눈길을 끌다) 冲眼(눈에 띄다) 转眼(눈을 돌리다) 挤咕眼(눈짓하다) 碍眼(눈에 거슬리다) 闪眼(눈이 부시다) 挤眼(눈짓하다) 飞眼(추파를 던지다) 弄眼(눈짓으로 알리다) 挡眼(시야를 가리다) ...

중국어의 경우 ‘目’은 주로 문어적 표현으로 사용되며, ‘眼’은 [시선]의 의미자질과 관련해 ‘眼热(부러워하다)’, ‘眼馋(탐내다)’와 같이 눈빛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또 인체어 ‘눈’의 [시선, 눈길]의 의미자질은 객관화되어 [관심, 주의]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관심, 주의]

- 눈: 눈이 집중되다, 눈을 피하다, 눈의 의식하다, 눈 딱 감다, 눈을 돌리다, 눈에 불을 켜다, 눈이 뚫어지게, 한 눈 팔다, 눈을 주다, 눈을 밝히다 ...
- 目: 触目(주목을 끌다) ...
- 眼: 闭眼(눈을 감고 모른 채하다) 翻眼(외면하다, 모르는 채하다) 当眼(눈에 잘 띄다, 주목을 받다) ...

‘눈’의 기능적인 면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은 서로 인접성이 인지되어 환유에 따른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

[판단]

- 눈: 눈이 빠다, 눈이 무디다, 눈이 높다, 눈이 트이다 눈을 띄워 주다, 눈이 날카롭다, 눈이 예리하다 ...
- 目: 目论(얕은 식견) ...
- 眼: 眼气(안목, 식견) 砸眼(물건을 잘못 보고 사다) 眼开(사물에 대해 눈이 트이다) 诗眼(시적 안목) 开眼(안목이 트이다) 眼浅(생각이 얕다) 长眼(통찰력을 발휘하다) 新闻眼(신문 기자적 안목) 锐眼(날카로운 안목) ...

3.4. 코-鼻

인체어 ‘코’는 형태면에서는 얼굴에서 정 중앙에 오뚝 솟아있고 콧구멍, 콧날, 콧등, 콧방울 따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한다.

이것을 인체어 ‘코’의 원형의미로 삼아 각각의 측면에서 어떻게 의미가 확장 되는지 살펴보겠다.

3.4.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코’는 형태면에서 얼굴의 정 중앙에 위치하며 얼굴 중에서 가장 높이 솟아 있다. 이러한 형태적인 측면은 사물에 적용되어 한국어 ‘코’의 경우 버선이나 신 따위의 앞 끝에 오뚝하게 내민 부분을 일컫는데 사용된다.

검정 고무신 코가 눈에 들어왔고 소창으로 된 푸른색 바지가 보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어 ‘鼻’는 사물에 대해 불쑥 튀어나온 부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印鼻(도장 쥐는 부분) 门鼻子(문 손잡이) 抽屉鼻子(서랍 손잡이) 茶壶鼻子(찻주전자의 뚜껑 꼭지) …

얼굴에서 코는 높이가 가장 높고 오뚝하게 솟아 있다. 이러한 형태는 추상화되어 사람의 자존심이나 우쭐댐, 고집 따위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

[자존심]

- 코: 콧대가 높다, 콧대가 세다, 코 값을 하다 …
- 鼻: 高鼻子 (콧대가 높다) …

[우쭐댐]

- 코: 코에 걸다, 코가 솟다, 코가 우뚝하다, 코가 높다, 코 큰 소리 …
- 鼻: 鼻孔朝天(●콧구멍이 천장을 향하다→오만하다) …

[고집]

- 코: 콧대를 꺾다, 콧대를 세우다, 콧등이 세다, 코가 세다 …
- 鼻: -

한·중 양 언어에서 인체어 ‘코’를 이용해 ‘높다/高’, ‘세다’등의 어휘와 결합하여 [자존심], [우쭐댐]등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중국어의 경우 한국어 ‘콧대를 꺾다’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拦头(콧

대를 꺾다)'가 있는데 한국어는 얼굴 중에서 가장 높은 부위인 '코'를 사용하여 [고집]을 나타내는데 비해 중국어는 사람의 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부분인 '头'를 사용하여 [고집]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의미의 관용구에 대해 인체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나 구체적인 인체 부분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양 국가의 문화적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체어 '코'를 사용해 한국어의 경우 '코가 납작해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존심이 꺾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코'가 [자존심]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존심의 상징인 '코'가 납작해짐으로써 자존심도 납작해짐(꺾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인체어 '코'가 [무안]의 의미자질을 갖는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코 떼어 주머니에 넣다, 코를 싸쥐다, 코를 떼다(무안을 당하거나 핀잔을 맞다)

한국어 예의 경우 무안하거나 핀잔을 받는 상황을 [자존심]의 상징인 '코'를 떼거나 감싸 쥐어 보이지 않게 하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체어 '코'에 관한 떼거나 감싸 쥐는 행동을 표현하는 중국어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다.

拧鼻子(코를 싸잡다) 捏着鼻子(코를 쥐다) 捉鼻(코를 쥐다)

위의 예들은 인체어 '鼻'와 '쥐다, 잡다'에 해당하는 중국어 '拧, 捏, 捉'가 함께 쓰여 표면적으로는 '코를 잡다, 쥐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 뜻은 각각 '싫다는 뜻을 나타내는 동작', '싫어도 억지로 한다', '꺼림칙하게 여기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어와 표현 형식은 유사하지만 그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중국어 '鼻'의 경우 얼굴의 정 가운데 위치한다는 형태적 특성에 의해 어떤 [표준]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拿他做个鼻子头儿(그를 표준으로 삼다)

이와 관련해 한국어의 경우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잔뜩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모양을 이르는 ‘코가 비뚤어지도록’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반듯하지 못하고 한 쪽으로 기울거나 쏠린다는 동사 ‘비뚤어지다’와 함께 쓰여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인체어 ‘코’의 원형 의미에 모습이나 몸가짐이 흐트러진 데 없이 얌전하고 깔끔하다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코’는 외관상 두 개의 콧구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로서 부분을 대신한다는 환유적 표현 방법에 의해 전체인 ‘코’를 사용하여 부분인 ‘콧구멍, 코끝’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부분(콧구멍, 코끝)과 전체(코)가 인접해 있다는 인지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콧구멍]

- 코: 코를 별름거리다,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다 ...
- 鼻: 擻鼻子=扎煞鼻子(코를 별름 거리다) ...

[코끝]

- 코: 코가 시큰하다, 코가 찡하다 ...
- 鼻: 鼻酸=鼻子酸(코가 찡하다, 콧등이 시큰하다) ...

또한 인체어 ‘코’는 코 속의 분비물을 대신 지칭하기도 한다.

[콧물]

- 코: 코를 닦다, 코를 훌쩍거리다, 코를 풀다, 코 묻은 돈, 코감기 ...
- 鼻: 擻鼻子(코를 풀다) 鼻子一驢(코가 메어 멍멍하다) ...

인체어 ‘코’가 환유적인 방법으로 [콧구멍]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다시 다른 사물에 있어 [구멍]이라는 유사성이 인지되어 중국어 ‘鼻’의 경우 [구멍]을 나타내기도 한다.

针鼻儿(바늘구멍) 扣鼻子(단추 구멍) …

이에 대해 한국어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을 의미한다.

코를 내다, 코를 잡다(뜨개질에서 그물이나 뜨개질실로 코를 만들다), 코를 줍다(뜨개질에서 코를 바늘로 걸어 내다), 안뜨기코, 겹뜨기코, 줄인코, 코잇기, 실코, 고무코, 사슬코, 겹침코, 거름코, 코줍기, 긴뜨기코, 겹단코, 여문코 …

이와 관련해 한국어 ‘코’는 뜨개질할 때 눈마다 생겨나는 매듭을 세는 단위로도 사용된다.

한 코 한 코 뜰 때마다 아내는 자신이 뜬 목도리를 두른 남편의 모습을 그리면서 행복해했다.

인체 부분으로서 ‘코’는 전체인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는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환유의 일종으로 부분과 전체가 인접해있다는 인접성이 인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다.

[사람]

- 코: 그 애는 요즘 코빼기³⁶⁾도 안 보인다, 이 음식을 누구 코에 붙이겠냐.
코배기, 양코, 코쟁이(서양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 鼻: 大鼻子(큰 코: 서양 사람에 관한 멸칭) …

인체어 ‘코’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을 보면 한·중·양 언어에서 서양 사람에 관한 놀림의 표현이나 멸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동양인으로서 서양인을 볼 때 머리색이나 눈동자의 색 따위의 다른 점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얼굴 중에서 정 가운데 위치하고 오뚝 솟은 ‘코’를 특징적으로 생각하는 점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코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그런 모양의 코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36) ‘코’를 낮잡아 이르는 말.

- 코: 코푸렁이³⁷⁾, 코납작이, 넓적코, 함실코, 납작코, 벽장코, 들창코, 안장코, 주머니코, 매부리코, 코주부, 말코 ...
- 鼻: 通矣鼻子(높은 코, 콧날이 높은 사람) 塌鼻子(납작코, 코가 낮은 사람) ...

한국어 ‘코’의 경우 코의 모양을 나타내는 예도 많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그런 모양의 코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예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어의 ‘코납작이’의 경우 코가 납작한 사람을 놀리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지만 ‘코’가 [자존심]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하여 ‘편잔이나 무안을 당하여 기가 꺾인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중국어의 경우 코의 모양을 나타내는 예도 드물었고 따라서 그런 코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예도 거의 없었다.

3.4.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 부위 ‘코’는 공기를 들이 마시고 내뿜으므로 숨을 쉬거나 냄새를 맡는 호흡 기관인 동시에 후각 기관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체어 ‘코’가 동물에 적용되어 코로 숨을 세게 내뿜으면서 내는 소리를 나타낸다.

[코로 내는 소리]

- 코: 코를 불다(돼지나 말 따위가 코로 숨을 세게 내뿜으면서 독특한 소리를 내다) 코투레(마소가 코를 떨며 자꾸 투투 하는 소리를 내는 짓) ...
- 鼻: 打鼻儿(말·당나귀 따위가 코를 불다) 驴打鼻儿(나귀가 코를 불다) ...

중국어의 경우 동물에 인체어 ‘鼻’가 사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牛鼻子 ① 소의 코.

牵牛要牵牛鼻子(소를 끌 때에는 코를 끌어야 한다)

② 중요한 부분, 관건, 급소.

就牵住了物价改革的牛鼻子(이것은 물가 개혁의 중요 부분과 관련이 있다)

37) ① 묶은 풀이나 코를 풀어 놓은 것처럼 흐물흐물한 것.
② 뜻대가 없고 흐리멍덩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③ 도사(道士)를 비웃는 말.

似这臭牛鼻子秃和尚(이 냄새나는 도사 나부랭이 까까중놈아)

이에 관한 한국어 표현 ‘쇠코(소코)’는 농기구에서 보습 뒷면의 네모진 구멍 위에 가로로 건너지른 부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한·중 양 언어에서 인체어를 동물에 적용한 표현으로 같은 형식이지만 그 뜻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5. 입-口·嘴

‘입’은 무엇을 먹거나, 마시며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는 기능을 가지며 사람의 얼굴에서 코 밑에 위치하는 입술에서 후두까지의 부분으로 입술, 입천장, 혀, 목적, 후두 따위로 구성되어 있다.

3.5.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입’은 다물거나 벌릴 수 있는데 입을 벌렸을 때 그 모양이 항아리나 병 따위의 입구나, 공간에서의 입구와 유사성이 인지되어 물체의 입구나, 공간상의 입구를 지칭할 때 인체어 ‘입’을 사용한다.

[입구]

- 입: ㄹ아가리: 입구, 출입문
- 口: 领口(옷깃의 둘레. 옷의 목둘레) 喷口(분화구) 投报口(신문 투입구) 山岔口(산골짜기의 입구) 舱口(선실 입구) 浇口(씻물 주입구) 闸口(수문구) 口门(강이 바다로 유입하는 입구) 阔口(병 따위의 큰 주둥이) 罗口(뜨개질로 짠 의류의 소매부리나 양말목 등 신축성 있게 처리된 부분) 袜口儿(양말목) 门口(입구) 楼口(2층의 계단 입구) 口儿(출입구) 险口(요해지의 관문) 枪口(총구) 窗口(창문) 进口(입구) 家门口(집의 현관) 出口(출구) 入口(입구) 胡同口儿(골목 입구) …

- 嘴: 瓶嘴儿(병 주둥이) 壶嘴(주전자 주둥이) 奶嘴(우유병의 젓꼭지) 嘴儿(기물의 주둥이) 瓶嘴(병의 아가리) 茶壶嘴儿(차주전자의 주둥이) 烟袋嘴(담배물부리) 口袋嘴儿(자루 주둥이) ...

인체어 ‘입’으로 [입구]를 표현할 때 한국어의 경우 항아리, 병 따위의 입구에 관해서는 ‘주둥이, 아가리’라는 표현으로 따로 사용하고, 공간의 입구의 경우 한자어 ‘入口, 出入口’ 따위의 표현을 두어 사용한다.

[입구]와 관련해 중국어 ‘口’는 ‘뚫려있는 것’에 관해서도 사용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纽口(단춧구멍) 风口(바람구멍) 断口(갈라진 틈) 出气口(공기구멍) 绷口(옷 따위의 터진 곳) 插口(끼워 넣는 구멍, 소켓) ...

또한 중국어 ‘口’는 우물, 종, 관, 독 따위의 아가리가 있는 물건을 세는 양사로도 사용된다.

- 一口井(우물 하나) 一口钟(종 하나) 一口棺材(관 하나)

3.5.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입’은 입술에서 후두까지의 부분으로 입술, 입천장, 혀, 목적, 후두 따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의 인접성 지각 능력에 의해 인체어 ‘입’으로서 그 구성부분을 지칭하기도 한다.

[입주위]

- 입: 입이 빨갳다, 입을 맞추다, 입을 오므리다, 입을 내밀다, 입이 부르트다 ...
- 口: 口红(립스틱) 口罩(마스크) 口疔(입가에 생긴 부스럼) 口辅(뺨) 口条(오리용 돼지나 소의 혀) 口糜(입속이 붉게 허는 병) 口轮筋(입 둘레의 근육) 荡口(입을 가시다) 绕口(혀가 잘 돌아가지 않다) ...
- 嘴: 伸舌喷嘴(혀를 내밀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다. 놀라고 기이하게 여긴다) 啞嘴(혀를 차다) 绕嘴(혀가 잘 돌아가지 않다) 喷嘴(혀를 차다) 亲嘴(입 맞추다) 嘻嘴(입가에 웃음 짓다) ...

한국어 ‘입’으로 그 구성 부분을 지칭하는 예는 대부분 ‘입술’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중국어의 경우 다음의 예와 같이 ‘입술’외에 ‘혀, 입안, 입가, 뺨’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 한국어 ‘입’에 비해 중국어 ‘口’, ‘嘴’가 구성면에서 인접성에 따른 의미 확장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 口: 口疔(입가에 생긴 부스럼) 口辅(뺨) 口条(요리용 돼지나 소의 혀) 口糜(입속이 붉게 혀는 병) 口轮筋(입 둘레의 근육) 荡口(입을 가시다) …
- 嘴: 伸舌喷嘴(혀를 내밀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다: 놀람) 点头咂嘴儿(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혀를 내두르기도 하다: 감탄) 咂嘴(혀를 차다) 绕嘴(혀가 잘 돌아가지 않다) 喷嘴(혀를 차다) …

또한 중국어 ‘口’는 ‘말이나 노새의 나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말이나 노새들의 이빨로 나이를 알 수 있다는 데 기인한 것인데 이는 사람의 입과 동물의 주둥이가 유사하다는 데서 유사성이 지각되고 다시 입 안의 이빨과 인접성이 인지되어 인체어 ‘입’으로 동물의 나이를 의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这匹马口还轻(이 말은 아직 어리다)
- 这头骡子是六岁口(이 노새는 여섯 살이다)

3.5.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사람의 ‘입’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능을 하는 것과 관련해 동물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관과 그 기능적 유사성이 지각되어 인체어 ‘입’으로 동물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관을 지칭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동물의 입]

- 입: 鸟嘴, 주둥이
- 口: -
- 嘴: 鸟嘴(새의 부리) …

중국어 ‘嘴’경우 동물 중 특히 새에 대해 사용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었고 이

와 관련해 새의 부리처럼 돌출한 지형에 대해서 그 유사성 인지 되어 ‘沙嘴(사주의 돌출부), 山嘴(子)(산부리)’ 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다.

한국어의 경우 동물의 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둥이’가 쓰이고 새에 관해서는 ‘부리’를 사용하여 사람의 입과 구별하고 있으며 사람의 입을 낮잡아 ‘주둥이(주둥아리), 아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의 기능적 측면에서 인체어 ‘입’은 ‘먹는 것’과 관련한 의미로 확장된다.

[먹다]

- 입: 입에 대다, 입이 밟다, 입이 쭈다, 입에 거미줄 치다, 입이 되다, 입이 풍년을 만나다, 입이 달다, 입이 높다, 입을 다시다 ...
- 口: 节口(먹는 것을 아끼다) 瓢口儿(과실 속의 맛) 口重(맛이 진하다) 口轻(담백하다) 悦口(맛이 좋다) 杀口(아주 맛있다) 口头(맛) ...
- 嘴: 嘴刁(입이 쭈다) 干巴咧嘴儿(입에 대지 않다) 骗嘴(무전취식하다) 贪嘴(게걸스럽다) 嘴亏(충분히 먹지 못하다) 偷嘴(훔쳐 먹다) 嘴壮(식욕이 좋다) 吧嗒嘴儿(입맛을 다시다) 扎嘴(입맛에 거슬리다) ...

한·중 양 언어에서 입이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과 관련해 인체어 ‘입’은 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른 인체 부분이 [사람]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은 형태적인 측면에서 부분과 전체의 인접성에 따른 의미 확장인데 비해 인체어 ‘입’이 [사람]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은 먹는 행위를 하는 입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인체어 ‘입’으로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는 음식을 먹을 사람의 의미를 내포한다.

[사람]

- 입: 입을 털다, 입이 늘다, 입이 하나 줄다, 입이 몇인데 겨우 요걸 사 오냐 ...
- 口: 为口丧生(가족을 거느리다) 添财进口(재산이 늘고 식구가 늘다) 没家没口(집도 없고 식구도 없다) 供家养口(식구를 부양하다) 携家带口(가족을 거느리다) 老两口(노부부) 计口(사람 수를 헤아리다) 口赋(인두세) 生口(포로) 口黄(●주둥이가 노랗다→뾰내기) 黄口(●노란 부리, 새 새끼→애송이) ...
- 嘴: -

중국어 ‘嘴’는 새의 [부리]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미자질은 갖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중국어 ‘口’의 경우 특히 ‘식구’를 의미하는 예가 많으며 이와 관련해 ‘口’는 사람(식구)을 세는 양사로서도 사용된다.

夫妻两口(부부 두 식구) 五口人(다섯 식구)

그리고 한국어 ‘입’과 중국어 ‘口’는 공통적으로 ‘먹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 번 먹을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된다. 또 중국어 ‘口’는 ‘말을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말을 하는 단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분량]

- 입: 한 입만 먹어 보자, 사과를 두세 입 베어 먹다 ...
- 口: 一口水(물 한 모금) 一口饭(밥 한 술) 一口烟(담배 한 모금) 一口气(한숨 한 번) 骂了他一口(그에게 한마디 욕을 하다) ...
- 嘴: -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능과 함께 사람의 입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말을 하는 것이다. 인체어 ‘입’이 [말(言)]의 의미자질을 갖는 예는 한·중 양 언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말]

- 입: 입이 도끼날 같다, 입이 개차반이다, 입이 천 근 같다, 입을 틀어막다, 입을 놀리다, 입을 모으다, 입 건너 두 집, 입이 질다, 입이 더럽다, 입이 걸다, 입이 무섭다, 입을 막다, 그 사람은 입이 거칠다, 입을 떼다, 입만 아프다, 입이 뜨다, 입이 무겁다, 입 밖에 내다 저 사람은 입으로는 당해 낼 수가 없다, 입을 다물다, 입만 살다 ...
- 口: 开口(말을 하다) 口译(통역) 齐口(이구동성으로 말하다) 驳口(반박하다) 口约(구두 약속) 狼口(입이 걸다) 饰口(말을 꾸미다) 夸口(허풍을 떨다) 口头(입에 발린 말) 口锋=口话儿=口话儿=口调(말씨) 缄口(함구하다) 口磻(말이 품위가 없다) 口稟(사뢰다) 口请(구두로 청하다) 口脏(말이 상스럽다) 顺口(유창하게 말하다) 动口(입을 놀리다) 口荐(구두로 추천하다) 佞口(말주변이 있다) 换口(말을 주고받다) 冲口(무심결에 말하다) 应口(대답하다) 闹口舌(말다툼하다) 口气儿(말버릇) ...

- 嘴: 嘴呐(말을 우물우물하다) 闭嘴(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다) 嘴紧(입이 무겁다) 嘴懒(말수가 적다) 铁嘴(확실하고 틀림없는 말) 嘴儿来嘴儿去(서로 말다툼을 하다) 嘴稳(입이 무겁다) 夸嘴(허풍을 떨다) 随嘴(입에서 나오는 대로 멋대로 말하다) 别嘴(말대꾸하다) 别嘴(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다) 嘴笨(말솜씨가 없다) …

인체어 ‘입’은 그 기능면에서 의미 확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며 한·중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어 ‘입’과 중국어 ‘口·嘴’모두 공통된 의미자질로는 [음식]과 [말]이 있었는데 이는 인체기관 입의 중요한 기능이 음식을 먹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6. 귀-耳

‘귀’는 얼굴에서 양쪽 옆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겉귀, 가운데귀, 속귀로 구성되며 움푹 팬 구멍을 통해 소리를 듣는 기능을 하는 청각 기관이다.

이러한 귀의 속성을 인체어 ‘귀’의 원형의미로 하여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에서 어떻게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다.

3.6.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귀’는 얼굴의 전면에 위치한 ‘눈, 코, 입’ 등과는 달리 좀 떨어진 구석부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부각되지 않고 귓바퀴의 모습만이 눈에 띈다. 사람의 얼굴 양 옆에 돌출되어있는 형태는 사물에 대해 양 옆으로 돌출한 부분과 그 유사성이 인지되어 사물의 양 옆에 달린 부분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손잡이]

- 귀: 귀가 떨어지다, 항아리의 귀가 깨졌다 …
- 耳: 耳柄(귀 달린 술) 锅耳(냄비의 손잡이) 耳子(그릇의 손잡이) …

인체어 ‘귀’가 형태상 ‘돌출되어 있다’는 특성이 사물에 적용되어 사물에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 즉 ‘손잡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예로 이는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인체어 ‘귀’가 얼굴에서 ‘양 끝에 있다’는 점과 유사성 인지 능력이 작용하여 사물이나 공간의 끝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양 끝]

- 귀: 주머니의 귀가 닳다, 거울의 한 귀가 깨지다 ...
- 耳: 耳门(옆문) 耳房(정방의 양 쪽 옆에 있는 작은 방) ...

중국어의 경우 ‘귀처럼 생긴’ 버섯의 이름을 인체어 ‘귀’를 사용하여 명명하고 있는데 한국어 역시 한자어 그대로 ‘목이버섯’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木耳(목이버섯) 银耳(사천에서 나는 하얀 목이버섯) ...

3.6.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귀’는 구성면에서 귤귀, 가운데귀, 속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접성 인지 능력에 의해 인체어 ‘귀’로 그 구성 부분을 지칭할 수 있다.

[귀 주위]

- 귀: 귀가 잘생기다, 귀를 뚫다, 귀를 잡아당기다, 귀 빠진 날 ...
- 耳: 耳轮(귓바귀) 耳刮子(뺨, 따귀) 揪耳朵(귀를 잡아당기다) ...

인체어 ‘귀’가 그 구성 부분을 지칭하는 표현은 주로 귓바귀를 비롯하여 귤귀를 지칭할 때 쓰이는데 이는 귀의 구성 부분 중에서 가장 밖으로 두드러져있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언어생활에 있어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생일을 인체어 ‘귀’를 이용해 ‘귀 빠진 날’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한국의 고유 표현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 머리 부분부터 나오는데 머리의 양 옆에 돌출된 귀까지 나오면 순조롭게 출산한다는 인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중국어의 경우 ‘长尾巴’라 하여 ‘꼬리가 나다’를 사용하는 것과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인체어 ‘코’가 인접성에 의해 그 속의 분비물인 ‘콧물’을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어 ‘귀’도 그 속의 분비물인 ‘귀지’를 지칭하며 이때 한국어, 중국어 모두 ‘파다/掏, 掘’라는 동사와 함께 쓰이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귀지]

- 귀: 귀를 파다 ...
- 耳: 掏耳朵=挖耳朵=掏耳屎(귀지를 파다) ...

인체어 ‘귀’는 귀의 구성 부분인 [귓구멍]을 지칭하기도 한다.

[귓구멍]

- 귀: 귀를 후비다 ...
- 耳: 掏耳朵=掘耳朵=搯耳朵(귀를 후비다) ...

인체어 ‘귀’가 [귓구멍]의 의미자질을 갖는 경우 한국어, 중국어 모두 ‘후비다, 파다/掏, 掘, 搯’ 동사와 함께 쓰이고 있어 귓구멍과 귀지의 의미 구분이 불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체어 ‘귀’가 [귓구멍]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해 사물에 난 구멍과 그 구성상의 유사성이 인지되어 [구멍]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구멍]

- 귀: 바느질을 하려고 바늘귀에 실을 꿰었다 ...
- 耳: 纽耳(단춧구멍) ...

3.6.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 부분 ‘귀’가 다른 인체 부분과 구별되는 기능은 듣는 기능이다. 청각 기관으로서 귀는 [듣다]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듣다]

- 귀: 귀 먹다, 귀가 밝다 ...
- 耳: 耳聾=耳朵聾=耳朵聰=耳聾(귀가 밝다) 耳朵沉(귀가 먹다) 耳力(청력)
耳尖=耳朵尖=耳快(청각이 예민하다) ...

[이해]

- 귀: 미국에 산 지 1년 만에야 귀가 뚫렸다 ...
- 耳: 耳音(말을 분간하는 능력, 알아듣는 능력) 口音总是不清楚, 耳音也不好
(발음도 아무래도 명료하지 않고, 알아듣는 능력도 좋지 않다) ...

[판단]

- 귀: 귀가 얇다 ...
- 耳: 耳食(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다) 耳朵软(귀가 여리다) ...

[듣다]의 의미자질과 관련해 귀는 [이해]의 의미까지 확장되고, 다시 [판단]의 의미로 확장된다. 인체어 ‘귀’가 이렇게 의미 확장을 보이는 것은 한·중 양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7. 손-手

‘손’은 사람의 팔목 끝에 달려 있으며 손등, 손목, 손바닥, 손가락 따위로 구성되고 무엇을 잡거나 가리키거나 주고받는 기능을 한다.

이것을 ‘손’ 원형의미로 하여 형태, 구성, 기능 각각의 측면에서 어떻게 의미가 확장되는지 살펴보겠다.

3.7.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손’은 사람의 몸통에서 양 옆으로 뻗어나간 팔의 끝에 달려있다. 이러한 형태적인 면은 어떤 사물을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손잡이’와 그

유사성이 인지되어 인체어 ‘손’은 [손잡이]를 의미한다. 이것은 팔목의 끝 부분이 사물의 끝 부분과 그 형태적 유사성이 인지되어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손잡이]

- 손: 맺손, 씨아손, 망돌의 손, 노손, 들손, 키손, 톱손, 당길손, 대팻손, 물렛손, 부두손 ...
- 手: 扼手(서랍 따위의 손잡이) 揪手(물건이나 문 따위의 손잡이) 扳手(방아쇠) 搬手(스패너) 拽手(손잡이, 잡아당기는 줄) 扣手(돌절구 따위의 손잡이로 뚫어 놓은 구멍) ...

3.7.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손’은 구성면에서 볼 때 손등, 손목, 손바닥, 손가락으로 따위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로서의 손은 부분인 구성요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는 전체로서 부분을 지칭하는 인접성 지각 능력에 따른 것으로 한·중 양 언어에서 손으로서 부분인 [손가락]을 지칭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손가락]

- 손: 손에 반지를 끼다, 손을 길다(약속하다), 손꼽아 기다리다 ...
- 手: 手榴子(반지) 手丫巴=手缝儿(손가락 사이) ...

인체어 ‘손’이 인접성에 의해 [손가락]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이 ‘전체→부분’에 따른 것이라면 인체의 한 부분으로서 손이 전체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역시 인접성에 따른 표현이며 ‘부분→전체’의 환유에 해당한다.

[사람]

- 손: 대잡이손(꼭두각시놀음에서 으뜸 조종자를 돕는 사람) 손을 거치다, 손을 바꾸다³⁸⁾ ...

38) (1) 손이 적다, 손이 달리다, 손이 모자라다, 손이 부족하다, 손이 떨어지다, 손이 남다, 손이 많다, 손이 넉넉하다.

(2) 두 손을 넘기다, 세 손을 거치다.

(1)에서 ‘손’의 의미를 일하는 사람으로 처리하고, (2)에서 ‘손’의 의미는 막연하게 무엇에 관련된 어떤 사람

- 手: 笨手(손재주가 서툰 사람) 假鼻儿手(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 帮手(조수) 算盘手(儿)(◎주판을 잘 놓는 사람→검약가) 湊手(필요한 인원을 끌어 모으다) 剩饭手(무능력한 사람) 对手(상대) 时间扒手(time-stealer의 의역) 草鸡手(쓸모없는 사람) 闲手(한가한 사람) 闹手(장난꾸러기) 连手(협력자) 经手(손을 거치다) 转手(남의 손을 거치다) 掉手(사람을 바꾸다) 倒手(사람을 교체하다) …

인체어 ‘손’이 [사람]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사람’ 즉 [일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손]

- 손: 바느질손(바느질을 하는 일손), 손이 부족하다, 손이 없다, 손이 달리다, 손이 필요하다, 손이 모자라다, 손이 적다, 손이 많다, 손이 남다, 손이 넉넉하다 …
- 手: 人手少(손이 적다) 人手不够=人手不足(손이 부족하다) 人手缺(손이 없다) 需要人手(손이 필요하다) 剩下人手(손이 남다) 人手多=人手足够(일손이 충분하다) …

한국어 손이 [일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손’은 ‘일손’으로 대치가 가능하며 중국어 ‘手’가 [일손]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대부분 ‘人手’의 형태로 쓰인다.

손이 [일손]을 의미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어 ‘手’는 특별히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의 의미로 인체어 ‘손’을 사용한다.

高手(고수) 妙手(달인) 第一手(1인자) 熟手(숙련자) 圣手(명인) 能手(재주꾼)
巧手(숙련가) 好手(정통한 사람) 老手(숙련된 사람) 硬手(재주꾼) 选手(선수)
神枪手(명사수) 多面手(팔방미인) 正手(전문가) 打手(경호원) 弓手(궁수) 鼓手(고수) 水手(선원) 纤手(중개업자) 拖拉机手(트랙터 운전수) …

한국어 ‘손’으로는 [능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예를 찾을 수 없는데 이는 한국어로 능숙한 사람을 표현할 때는 한자어 ‘手’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어 ‘手’는 어떤 일을 막 시작한 사람이나 초보적 기술을 가진 사람을

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1)의 ‘손’은 보다 구체화된 ‘일손’으로 대체되어 쓰이기도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홍사만(1993), “신체어의 다의 구조 분석(IV)”, 『어문논총』, 27호, 경북어문학회, pp.67-69.

의미하거나 특정 부류 사람을 의미하는 예로 사용되기도 한다.

[초보자]

· 新手=生手(뜻내기) 嫩手儿(●여린 손→미숙련자) 冷手(비전문가) …

[특정부류의 사람]

· 猎手(사냥꾼) 凶手(살인자) …

인체어 ‘손’이 [능숙한 사람], [초보자], [특정 부류 사람]을 의미로 사용되는 예는 중국어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로써 한국어 ‘손’에 비해 중국어 ‘手’가 갖는 [사람]이라는 의미자질의 폭이 넓음을 알 수 있다.

인체어 ‘얼굴’과 ‘눈’이 [사람]의 의미자질을 통해 [마음]이라는 의미자질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이 인체어 ‘손’ 역시 [마음]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다.

마음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내적 요소로서 마음과 사람은 부분과 전체의 인접 관계에 놓이게 되며 ‘외적부분: 손’→‘전체: 사람’→‘내적부분: 마음’과 같이 간접적인 전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마음]

· 손: 손이 깨끗하다, 손이 더럽다, 손이 거칠다 …

· 手: 手软(우유부단하다) 手辣(마음이 악랄하다) 手黑(마음이 음흉하다) …

[인간관계]

· 손: 손을 맞잡다(서로 뜻을 같이 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다) 손을 끊다(교제나 거래 따위를 중단하다) 손이 닿다(연결이 되거나 관계가 맺어지다) …

· 手: 洗手不干(손을 씻고 관계하지 않다) 分手(●손을 나누다→헤어지다) 握手=拉手=携手(손을 잡다→협력하다, 합작하다) …

인체어 ‘손’이 [사람]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해 손으로써 [인간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

인체어 ‘손’으로써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이 어떤 관계를 맺는 상황과 유사하게 지각됨으로써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중국어에서만 보이는 예로 남녀 간에 부적절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有一手(◎손에 있다→남녀 간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

3.7.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손이 하는 기능은 무엇을 잡거나, 가리키고, 물건 등을 주고받는다. 먼저 인간의 손의 기능 중에 무엇을 잡거나 가리키는 등의 유사성에 따른 의미 확장의 예를 살펴보겠다.

- (ㄱ) 계의 손, 가재의 손 ...
- (ㄴ) 덩굴손 ...
- (ㄷ) 시계의 손 ...

위의 예들은 한국어 ‘손’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손의 기능 가운데 붙잡고, 가리키는 기능의 유사성이 (ㄱ), (ㄴ)의 예와 같이 생물이나 (ㄷ)의 예와 같이 무생물로 확장되어 사용된 것으로 기능적 유사성 뿐 아니라 인간의 ‘손’과 그 외 형적 형태의 유사성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인체어 ‘손’의 기능면에서의 의미 가운데 어떤 것을 ‘잡는다’는 것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작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인체어 ‘손’은 [작다]의 의미자질을 갖는데 인체어 ‘손’이 [작다]의 의미자질을 갖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작다]

- 손: 손바구니, 손거울, 손지갑, 손수건, 손전등, 손난로, 손가방 ...
- 手: 手锯(작은 톱) 手炉(주머니 난로) 手鐮(조그만 삽) 手电筒(손전등) 手绢(손수건) 手冊(수첩) 手炮(수류탄) ...

또한 손의 잡는 기능은 손의 속성인 힘과 결합하여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세력]의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세력]

- 손: 손을 뺀치다, 손을 펴다, 손에 넣다 ...
- 手: 手长(●손이 길다→권한을 남용하여 사복을 채우다) 伸手(●손을 뻗다→세력을 뻗치다) 弄到手里(손에 넣다) ...

인체어 ‘손’이 하는 기능 중에서 어떤 것을 주고받는 기능에서 ‘주는 것’과 관련하여 [쏟씀이]로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손으로 물건을 주는 행위와 소비하는 행위가 비슷하게 지각되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쏟씀이]

- 손: 손 큰 어미 장 도르듯 하다, 손이 작다, 손이 맑다(인색하여 남에게 물건을 주는 품이 후하지 못하다), 손이 길다(쏟씀이가 후하다), 손이 크다 ...
- 手: 阔手(쏟씀이가 큰 사람) 手狠=手紧(인색하다) 手掬(돈 싹씀이가 헤프다) 手松(돈을 헤프게 쓰다) ...

손의 ‘잡는다’는 기능과 관련해 한국어 ‘손’은 ‘손으로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로 사용된다. 이때 조기, 고등어, 배추 따위 한 손은 큰 것과 작은 것을 합한 것을 이르고, 미나리나 파 따위 한 손은 한 줌 분량을 이룬다.

손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손으로 직접]

- 손: 손칼국수, 손뜨개질, 손빨래 ...
- 手: (ㄱ)手车(손수레) 手风琴(손풍금) 手拨轮(핸드 기어) 手摇式喷雾机(수동식 분무기) 手压泵(수동식 펌프) 手摇车(휠체어) ...
- (ㄴ)手植(직접 심다) 手抄(직접 손으로 베껴 쓰다) 手递(직접 전하다) 手记(체험을 손수 적다) 手书(글을 손수 쓰다) 手教(몸소 가르치다) 手订(손수 제정하다) 手创(몸소 창립하다) 亲手(직접) 手写体(필기체) ...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인체어 ‘손’이 [손으로 직접]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중국어의 경우 (ㄱ)과 같이 특별히 기계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의 뜻으로 사용되는 예와 (ㄴ)과 같이 ‘직접 한다’는 뜻을 사용되는 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봤던 손의 구성면에서 확장된 [일손]과 관련하여 손으로 하는 어떤 일에 관한 질적인 가치 판단의 의미에서 인체어 ‘손’의 의미는 [솜씨]로 확장이 되기도 한다.

[솜씨]

- 손: 바느질손(바느질을 하는 솜씨), 손이 걸다(이 일 저 일 두루 일솜씨가 날쌔거나 좋다), 손이 거칠다(솜씨가 꼼꼼하지 못하다), 손이 여물다, 손에 오르다, 손에 익다, 손에 잡히다, 손에 걸리다, 손에 붙다 ...
- 手: 草鸡手(서툰 솜씨) 手头=手儿(손재주) 耍手艺(손재주로 생활해 나가다) 鸡手鸭脚(서투르다) 笨手=笨脚=手笨(손재주가 없다) 手艺(기술, 솜씨) 两手(솜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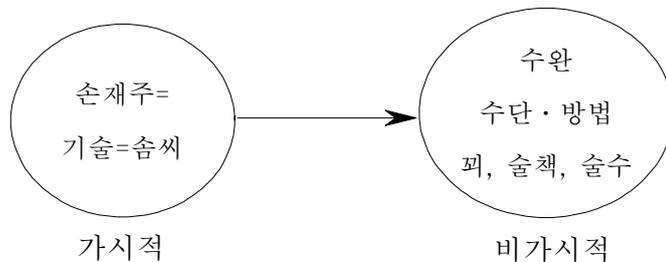
[능력]

- 손: 손이 닿다(힘이나 능력이 미치다) ...
- 手: 露一手=亮一手=看一手(능력을 보이다) ...

인체어 ‘손’이 ‘손으로 직접 일한다’는 의미자질과 인체어 ‘손’이 [능력]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해 중국어 ‘手’는 능력에 관한 양사로 쓰인다.

他有一手好手艺(그는 손재주가 훌륭하다)
他真有两手(그는 정말 능력이 있다)

기술이나 솜씨에 의해 구체적, 가시적으로 이뤄지는 일은 작업이다. 이로부터 비가시적인 사건으로 추상화되면 [수단]의 의미가 생성된다. 이들 사이의 유연성과 전이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³⁹⁾.



39) 홍사만(1993), 「한·일어 대조어학」, 탑출판사, p.195.

[수단]

- 손: 손이 작다(수단이 적다), 손이 크다(수단이 좋고 많다) ...
- 手: 手狠心黑(수법이 악랄하고 음험하다) 钉手钉嘴(악랄한 수단과 야비한 말) 狠手(잔인한 수단) 毒手=死手=阴手(음험한 수단) 横手(부정한 수단) 杀手锏(비장의 무기) ...

인체어 ‘손’이 [숨씨]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해 나쁜 숨씨, 즉 손으로 하는 재주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손버릇]

- 손: 손이 거칠다, 손이 검다, 손을 적시다, 손을 잠그다 ...
- 手: 手长=手黏=手脚不干净=手不稳(손버릇이 나쁘다) ...

이것은 손의 기능 중에서 어떤 물건을 ‘잡는다’에서 ‘훔치다’로 전이되어 획득하게 된 의미이다. [손버릇]과 상대적으로 ‘손이 희다, 손이 부드럽다/手白, 手脚干净, 手短’ 등은 ‘손버릇이 좋다’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인체어 ‘손’의 의미 확장에서 중국어 ‘手’에만 보이는 의미자질로 다음과 같은 예를 더 들 수 있다.

- (ㄱ) 手纸(화장실용 휴지) 净手(용변(用便)하다) ...
- (ㄴ) 手风 冲手气(재수가 좋다) 手气(제비나 노름 따위의 운) 手硬(도박 따위에서의 꺾발) ...

(ㄱ)의 예는 한국어의 화용적 용법으로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표현을 ‘손 좀 씻고 오겠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와 유사하며, (ㄴ)은 중국어 ‘手’가 [행운]의 의미로 쓰인 예로 한국어에서는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없다.

이상 인체어 ‘손’에 관한 한국어 ‘손’과 중국어 ‘手’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중 인체어 ‘손’의 의미 확장은 거의 유사했으며 의미 항목 또한 다른 인체 부분에 비해 많았는데 이는 손을 사용하는 일이 가장 곁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3.8. 배- 服 · 肚

‘배’는 인체에서 앞쪽의 중간 부위로 주로 그 내부에 음식물을 소화하는 위장과 내장, 생식기 등이 들어있는 복강까지 포함되며 소화 기관으로서의 배 부위는 먹은 음식을 삭임과 아이를 뱀과 생물이 몸 밖에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신진대사로 생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⁴⁰⁾

이것을 인체어 ‘배’의 원형의미로 하여 각각의 국면에서 어떻게 의미가 확장되는지 살펴보겠다.

3.8.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배는 인체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다. 이러한 형태적 특성이 사물에 적용되어 사물의 중간 부분, 또는 불룩한 부분을 지칭하는 데 인체어 ‘배’가 사용된다.

[중간 부분]

- 배: 배가 불룩한 돌기둥 ...
- 腹: 瓶腹(병의 배) 山腹(산허리) ...
- 肚: -

중국어 ‘腹’의 경우 사물의 [중간 부분]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에서 확장하여 ‘사물→공간’으로 확장되어 공간상의 [중앙]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腹地(오지), 深入腹地(오지에 깊숙이 들어가다) ...

또한 중국어 ‘腹’은 인체어 ‘배’가 사람의 몸 앞부분에 위치한다는 형태상의 특성에 의해 [앞부분]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이때 중국어 ‘腹’은 뒤를 의미하는 ‘背’와 쓰이며 문맥에 따라 ‘앞뒤’를 의미하기도 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40) 최택호(2004), "한·일 양국어의 신체 어휘를 사용한 관용 표현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72.

腹背 ①앞뒤.

腹背抗拒(전후로 적을 막아 저항하다)

腹背受敌(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다)

②매우 가까운 사이.

腹背相亲(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3.8.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에서 ‘배’ 부분은 겉으로는 둥근 형태로 배꼽이 보일 뿐이지만 그 안에 위, 장, 십이지장 따위의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 음식물이 들어있지 않아 허기를 느낄 때 ‘배가 고프다’는 표현으로 ‘위’ 대신에 인체어 ‘배’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차 포만감을 느낄 때도 ‘배가 부르다’라는 표현으로 ‘위’대신 인체어 ‘배’로 표현한다. 이것은 ‘위’는 인체 내부의 장기로 눈에 보이지 않아 언어생활에 있어서 가시적인 인체 부위 ‘배’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은 한·중 인체어 ‘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위(胃)]

- 배: 배가 부르다, 배가 고프다, 배가 아프다 ...
- 腹: 腹满(배가 부르다) 腹痛(복통) 果腹(배불리 먹다) 食不果腹(배불리 먹지 못하다) 蟬腹龟肠, 为日已久(끓주려 온 지 이미 오래다) 蟬腹龟肠(이슬만 먹은 매미 배와 같고 물만 먹는 거북 창자와 같다) 枵腹从公(◎빈속으로 공무에 종사하다→보수 없이 일하다) ...
- 肚: 肚子痛(배가 아프다) 肚子饿了(배가 고프다) 吃得太多, 肚子胀了(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풀 정도로 부르다) ...

[장(腸)]

- 배: 배탈이 나다, 배가 아프다 ...
- 腹: 腹疾 腹泻(설사) 腹结(변비) ...
- 肚: 害肚子(설사하다) 闹肚子(배탈이 나다. 설사를 하다) 跑肚=走肚=泻肚(설사하다) ...

인체어 ‘배’로 내부 장기를 표현한 예를 보면 ‘위’와 ‘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기관인 내부 장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외부 기관인 ‘배’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인체어 ‘배’ 역시 다른 인체 부분과 마찬가지로 ‘외적 부분: 배→전체: 사람→내적 부분: 마음’의 전의 과정을 통해 ‘마음’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다.

[마음]

- 배: 배가 맞다, 배가 아프다, 배가 뒤집히다, 배가 뒤틀리다, 배알이 나다, 배알이 꼬이다, 배알이 풀리다 ...
- 腹: 腹诽(마음속으로 헐뜯다) 腹心(마음 속 깊은 곳) 腹心之患(속병) 敢布腹心(감히 진심을 털어 놓다) 腹心相照(진심이 서로 통하다) 腹心交(친밀한 교제) 腹议(말은 하지 않으나 마음속으로는 견해가 있다) 腹中有劍, 笑里藏刀(벋속에 검이 있고, 웃음 속에 칼이 있다) ...
- 肚: 肚肠(마음씨, 성격) 热心热肚肠(뜨거운 마음씨, 열정) ...

한국어 ‘배’를 사용한 관용 표현 중에서 ‘배가 맞다’는 옳지 못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데 있어 서로의 뜻이 통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들 둘은 군대에서부터 배가 맞더니 사회에 나와서 못된 것만 하면서 어울려 다닌다.

그리고 부정관 관계의 남녀 사이에서 남모르게 마음이 맞아 서로 몸을 허락한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며느리 녀은 서방이 군대 나간 사이에 어느 놈하고 배가 맞아 도망갔다.

또한 [마음]에서 파생되어 ‘성미, 분노, 언짢음, 증오, 울분’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주로 창자를 이르는 ‘배알’을 이용하여 분한 마음이 일어남을 표현한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어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인체어 ‘배’ 역시 [마음]의 의미자질에서 파생되어 ‘질투’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인다.

감정의 의미와 관련에 있어서 한국어 ‘배’의 표현은 위와 같이 ‘화, 분노’ 등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배’는 그 내부를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없는 인체 부분으로 사람이 속으로

품고 있는 ‘내심, 생각, 속셈, 의중’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생각]

- 배: 뱃속을 알 수 없다, 뱃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뱃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있다, 배짱이 있다, 배짱이 맞다, 배짱이 세다, 배짱이 좋다, 배짱을 내밀다, 배짱을 대다, 뱃심을 대다, 뱃심을 부리다, 뱃심이 좋다, 배알을 뽑는다, 배알이 늘었다, 배알을 부리다 ...
- 腹: 腹稿(구상) 腹案(복안, 계획안) 我这不过是腹稿, 还没有写出来(나의 이것은 구상에 불과할 뿐 아직 쓰지는 않았다) ...
- 肚: -

한국어의 경우 ‘뱃속’을 사용하여 내심, 생각, 속셈, 의중’의 의미를 나타내고 이와 연관되어 한국어 ‘배’의 합성어로서 ‘뱃심, 배짱, 배알’ 등을 이용하여 ‘배’의 기본적인 의미인 [마음], [생각]등에서 ‘의지, 각오, 담력’의 의미로 나아간다.

3.8.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배’는 음식물의 소화 작용의 기능을 하는 위장 등을 갖추고 있는 소화 기관으로서의 배부른 상태, 배고픈 상태의 기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배의 기본적인 소화 기능은 [식욕]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식욕]

- 배: 배가 부르다, 배껏 먹다, 배가 불룩해지다, 배를 채우다, 배고프다, 배를 곬다 ...
- 腹: -
- 肚: 肚子胀了(배가 불룩해지다) 下肚(배를 채우다) 鼓肚子(배불리 먹다) 饿肚(배를 곬다) ...

그 중에서 한국어의 ‘배를 채우다’는 더 먹고 싶지 않도록 양에 찬다는 기본 의미에서 추상화되어 무엇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 싶다는 ‘욕심’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욕망에 관한 충족감을 식욕과 결부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배를 채우다’와 같은 표현으로 중국어 ‘鼓肚子(배를 채우다)’는 식욕에서 추상화

되어 ‘●뱃속에 감추다→분노의 감정을 억제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식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화 작용 기능의 만복시의 배와 연관되어 파생된 것으로 자기의 자식을 낳는다는 뜻의 [임신, 출산]의 의미를 나타낸다.

[임신, 출산]

- 배: 배 안에 조부는 있어도 배 안에 형은 없다⁴¹⁾, 배 안의 아이 아들 아니면 딸이다, 배가 남산만 하다, 배 아파 낳은 자식, 배가 다르다 ...
- 腹: -
- 肚: 帶肚子(배가 커지다. 임신하다) 大肚子(큰 배(腹), 임신, 임신부) ...

한국어 표현 중에서 ‘배가 남산만 하다’는 배가 불러 앞으로 나왔다는 뜻으로, 임신부의 배가 부름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쓰며 또한 되지 못하게 거만하고 평평거름을 놀림조로 이르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중국어 표현 중에 ‘임신’이나 ‘임신부’를 의미하는 ‘大肚子’에 관한 ‘小肚子’는 ‘아랫배’를 의미하여 그 의미가 임신이나 출산과 관계가 없다.

[임신]의 의미가 좀 더 파생되면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까는 횟수의 단위로 즉 ‘동물의 출산’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러한 표현은 한국어 ‘배’에서만 보인다.

그 돼지는 1년에 두 배나 새끼를 낳았는데, 한 배마다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3.9. 발-足·脚

발은 사람의 다리에서 발목뼈 아래의 부분으로 몸을 지탱하거나 걸거나 뛰거나 하는 기능을 하며 발꿈치, 발바닥, 발등, 발가락 따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인체어 ‘발’의 원형의미로 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어떻게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할아버지뻘은 될 수 있으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형이라고 할 수는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9.1.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어 ‘발’은 인체의 가장 아래 부분에 달려있다. 이러한 형태적 특성이 다른 사물에 적용되어 사물의 가장 아래 부분에 달려있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사물의 발]

- 발: 장롱의 발, 삼발이 ...
- 足: 三足鼎(세 발 달린 솥), 足儿(기물의 다리), 鼎足儿(솥발) ...
- 脚: 椅子脚(의자다리) 桌子脚(책상다리) 床脚(침대의 발) 脚轮(가방이나 소파 · 침상 다리 밑에 달린 작은 바퀴) 锅脚(솥발) 高脚杯(굽이 높은 잔) 牆脚(담 · 벽의 토대) 脚叶(채소의 뿌리 근처에 나는 잎) 山脚(산기슭) 褲脚(바지의 단) ...

한국어 ‘발’이 사물에 적용되어 사물의 밑 부분에 달려 몸체를 지탱하는 구실을 하는 부분을 지칭할 때 그 길이가 길면 ‘다리’, 짧으면 ‘발’이라 칭한다. 장롱의 경우 몸체를 받히는 부분이 짧기 때문에 ‘발’이라하고, 책상이나 의자, 식탁 등 몸체를 받히는 부분이 긴 경우는 ‘책상다리, 의자다리, 식탁다리’와 같이 인체어 ‘다리’로 표현한다.

위와 관련해 한국어의 경우 ‘책상발, 의자발, 식탁발’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데 반해 중국어의 경우 사물의 몸체를 받히는 부분에 대하여 발의 의미를 갖는 ‘脚(발목 아래 부분을 지칭)’와 다리의 의미를 갖는 ‘腿(발목 윗부분을 지칭)’가 두루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桌脚= 桌腿(책상 다리), 椅子脚= 椅子腿(의자다리)

‘발’이 인체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한다는 형태적 특성에서 중국어 ‘脚’의 경우 다음과 같이 ‘찌꺼기, 우수리, 여분’의 의미를 갖는다.

酒脚(남은 술) 下脚(가공 · 사용 · 판매하고 남은 것) 泔脚(쌀뜨물, 개숫물) 脚货(하등품, 하치) 货脚(팔다 남은 상품) 皂脚(비누 제조의 부산물) ...

3.9.2. 구성면에서의 의미 확장

인체 부분 ‘발’은 발등, 발바닥, 발가락 등으로 구성되면 각 부분은 전체로서 부분을 대신하는 환유의 표현에 의해 인체어 ‘발’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발주위]

- 발: 발을 빠다(발목을 빠다), 발에 못이 박히다 ...
- 足: 足蜚 足跣(발에 생기는 굳은 살) ...
 胼手足=手足重蜚=手足胼胝=手胼足胝(손발에 못이 박히다)
- 脚: 脚蜚(발에 생긴 굳은 살) 脚心=脚窝(발바닥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가운데 부분) ...

인체어 ‘발’이 ‘발’의 구성 부분을 대신하는 예를 살펴보면,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인체어 ‘발’은 [발바닥]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한국어 ‘발’은 [발목]과 [발바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어 ‘足·脚’은 공통적으로 [발바닥]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특히 ‘脚’만이 [다리]의 의미를 갖는다.

脚震(다리가 떨리다, 두려워 벌벌 떨다) 脚擂鼓一世苦(다리를 떠는 사람은 평생 고생한다) 斗鸡脚=斗脚(안짱다리) 脚软(다리가 나른하다, 다리에 맥이 없다) 脚踩棉花(술·병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이 비틀거리다) 脚力(다리 힘) 两脚规(컴퍼스)

[다리]의 의미자질을 갖는 표현을 보면 ‘脚擂鼓一世苦(다리를 떠는 사람은 평생 고생한다)’라는 속담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해서 다리를 떠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데, 한국과 중국 공통적으로 몸가짐과 예의를 중시해 경망스럽게 다리를 떠는 습관을 좋지 않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3.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

‘발’은 사람의 몸을 지탱하거나 움직여 이동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

능적인 측면에서 그 유사성이 지각되어 동물의 몸을 지탱하고 움직여 이동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인체어 ‘발’을 사용하여 지칭한다.

[동물의 발]

- 발: 쇠발개발⁴²⁾, 괴발개발⁴³⁾
 닭발, 오리발, 오징어 발, 문어 발 ...
- 足: 骏足(준마의 발이 빠르다) 骥足(●천리마의 발→뛰어난 재능) 蜘蛛有八足(거미는 발이 8개이다) 桡足(새우 따위의 납작한 발) 腕足(문어·오징어 따위의 발) 蹼足(물갈퀴가 있는 발) 龟足(거북다리) ...
- 脚: 鸟脚(새발) 腮脚=颞脚=步脚(갑각류의 발) ...
 鸡腿(닭다리) ...
 马脚(말의 다리) ...
 前爪(앞발) 鸡爪(닭발) ...

인체어 ‘발’이 동물에 적용될 때 한국어의 경우는 오징어, 문어 따위에 관해서만 ‘발’과 ‘다리’가 혼용해서 쓰일 수 있어 ‘오징어 다리, 문어 다리’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비해 중국어 예서는 ‘腕足(문어·오징어 따위의 발)’에 대해 ‘腕腿(오징어·문어 다리)’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의 발의 지칭하는 표현에 관해 중국어 ‘足, 脚, 爪’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혼용해서 쓰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새의 발’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은 ‘鸟脚’이며 ‘鸟足’, ‘鸟爪(새 발톱)’로 표현하지 않고 ‘닭의 발’은 ‘鸡爪’이며 ‘鸡脚’, ‘鸡足’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어 ‘脚’는 ‘발’의 의미와 ‘다리’의 의미가 혼용되어 쓰이는데 중국어 ‘马脚’은 ‘말의 다리’라는 뜻으로의 다리로 분장한 사람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숨기고 있던 일이나 정체를 드러냄을 이르는 말 ‘露出马脚’와 관련해 ‘엇끔한 속셈, 내막, 빈틈, 약점, 결함’ 따위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발’은 운동기관으로서 걷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이와 관련해 [걸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42) 소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아주 더러운 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3)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데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

[걸음]

- 발: 발이 빠르다, 발을 멈추다, 발이 재다, 발을 타다(강아지 따위가 걸음을 걸기 시작하다) …
- 足: 驻足(걸음을 멈추다) 失足落水(발을 헛디더 물속으로 떨어지다) 足音(발자국 소리) …
- 脚: 挂脚(발을 멈추다) 杀脚(발걸음을 멈추다) 拨转脚头(발을 돌리다) 脚头儿快(걸음걸이가 빠르다) 腿脚不利落(발이 민첩하지 않다) 跑脚(바쁘게 돌아다니다) 绕脚(길을 돌다) 开脚(●발을 막 내딛다→시작하다) 赶脚(길을 재촉하다) 撇脚(팔자걸음) 顺脚(편승하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针脚(바느질 자리, 바느질의 땀) …

인체어 ‘발’이 [걸음]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해 한국어 ‘발’은 수사 뒤에 쓰여 ‘걸음을 세는 단위⁴⁴⁾’로도 사용된다.

한 발, 두 발 …
한 발 뒤로 물러서다.

‘발’의 걷는 기능과 관련해 범위를 표현하는 ‘넓다’와 함께 쓰여 교제나 인간관계가 넓음을 나타낸다.

발이 넓다, 마당발 …

이와 관련하여 중국어 표현은 ‘眼皮杂, 眼宽(교제가 넓다, 발이 넓다)’으로 한국어는 인체어 ‘발’로, 중국어는 인체어 ‘眼(눈)’으로 각각 [교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인체어 ‘발’은 발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추상화되어 어떤 일이나 사건, 모임에 들어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

- 발: 발을 들여놓다, 발을 넓다, 발을 담그다, 발붙이다, 발이 길다/짧다 …

44) 중국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양사로 ‘步’를 사용한다.
只有几步路了(몇 걸음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이다)
再走两步儿就到(몇 걸음 더 가면 도착한다)

- 足: 厠足(발을 들여놓다) 駐足(발붙이다) 厠足曲艺界(연예계에 몸을 담다)
厠足其間(그들 사이에 발을 들여놓다) 插足=蹶足(●발을 들여놓다→어떤
활동에 참여하다) …
- 脚: 插脚(●발을 들여 놓다→어떤 활동에 참여하다) …

인체어 ‘발’이 [관계]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해 한국어 ‘발이 길다/짧다’는 전용의 정도가 심한 관용적 표현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 좌중에 때맞추어 참여하게 되거나 아슬아슬하게 늦게 도착하여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⁴⁵⁾.

위의 [들어감]의 의미 항목과 대립되는 의미로 어떤 일에서부터 관계를 끊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발을 빼다, 발을 씻다, 발을 끊다’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중국어 표현으로는 ‘撤腿儿’, ‘拔腿’로 인체어 ‘腿(다리)’로 ‘관계를 끊음’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발뺨을 하다’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특히 ‘발을 씻다’의 경우는 ‘종지 못한 일을 그만두다’의 의미로 한·중이 공통적이며 이와 관련되어 ‘손을 씻다/洗手’의 표현도 한·중 공통으로 존재한다.

이는 인체어 ‘손’과 발이 인간 활동에 있어 주요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체어 ‘발’은 ‘발’의 기능 중의 하나의 걸음걸이의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사람의 [마음]⁴⁶⁾을 표현하기도 한다.

[마음]

- 발: 발이 무겁다, 발이 가볍다, 발 맛다, 발맞추다, 발을 동동 구르다, 발 벗고 나서다(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다), 발을 뺀다 …
- 足: 頓足=跣足=蹶足(발을 동동 구르다) 頓足捶胸(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다) 捶胸頓足=捶首頓足(슬프거나 분해서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다) …
- 脚: 脚轻(발걸음이 가볍다) 脚重(발걸음이 둔중하다) 捶胸跌脚=蹶脚(흥분하거나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 搓手頓脚=搓手搓脚(초조하거나 안타까워 손을 비비며 발을 동동 구르다) …

45) 홍사만(1993), “신체어의 다의구조 분석(IV)”, 『어문논총』 27호, 경북어문학회, p.327.

46) 홍사만, 위의 논문, p.311.

한국어 표현 ‘발이 무겁다/가볍다’와 중국어 표현 ‘脚轻(발걸음이 가볍다), 脚重(발걸음이 둔중하다)’는 심리적 부담의 상태를 무게로 느끼고 있음을 발걸음을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 ‘마음에 부담이 있다/없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발맞추다’는 주로 사람들이 행진하는 양태로부터 유사성이 인지된 의미라고 여겨지며 구체적인 동작 형태로부터 추상화된 과정을 겪음으로서 ‘서로 돕다’의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한국어에만 보이는 표현이다.

‘발이 맞다’는 ‘손이 맞다’, ‘눈이 맞다’, ‘입이 맞다’, ‘마음이 맞다’ 등의 관용구와 대비되는데 발이나 손, 눈이나 입이 모두 마음에 직결되지만 ‘손’의 경우는 일하는 상황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것이고 ‘눈’은 사랑의 감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입’은 서로 똑 같은 말을 한다는 것으로 표현상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⁴⁷⁾.

‘발을 동동 구르다’라는 표현은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보이는데 한국어에서는 몹시 안타까워하거나 조바심을 내는 마음을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중국어에서는 후회, 슬픔, 초조, 안타까움, 흥분,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 중국어의 표현 범위가 더 넓음을 알 수 있다.

‘발을 벗다’라는 표현은 한국어에만 보이는 표현으로 양말이나 신발에 쓰이는 동사 ‘벗다’를 발에 사용하여 인체어 ‘발’로써 양말이나 신발 따위를 나타내며, 이와 관련해 ‘발 벗고 나서다’라는 표현은 양말이나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나서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발을 뻗다’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온한 자세가 되는 것으로 흔히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편히 살아가는 것을 ‘발 뻗고 자다’로 표현한다. 이와 한국어 ‘발을 뻗다’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으로 ‘伸腿(발을 뻗다)’가 있는데 그 의미에 있어서 ‘끼어들다. 관여하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 하다’는 의미를 가져 한국어의 의미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47) 홍사만, 앞의 논문, p.313.

4. 한·중(韓中)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 비교

4.1. ‘머리’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인체어 ‘머리’에 관한 한국어 ‘머리’와 중국어 ‘头·脑·首’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국어 ‘머리’의 의미자질과 중국어 ‘头’가 가장 비슷한 형태로 의미자질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체에서 가장 윗부분에 위치한다는 형태적인 면에서 인체어 ‘머리’는 한·중 공통으로 조직이나 단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그 유사성이 지각되어 [우두머리]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다. 이러한 위치적인 특성은 사물에 적용되어 [윗부분]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이는 다시 상하 개념에서 수평 개념으로 전이 되어 [앞부분]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공간상에서의 [앞부분]은 시간상으로 [처음]을 의미하며 중국어 ‘头’의 경우만 다시 추상화 되어 [최고]의 뜻을 갖게 된다.

공간상 [앞부분]의 의미자질은 상대적으로 [끝부분]의 개념을 상징하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가장자리]와 [나머지]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구성면에서 보면 인체어 ‘머리’는 머리카락, 뇌, 두개골 따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인접해 있다고 인지되어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인체어 ‘머리’로서 [머리카락] [두개골] [뇌]를 지칭할 수 있다. 특히 중국어의 경우 ‘头’와 ‘脑’가 구별되어 쓰이는데 [두개골]의 의미자질은 ‘头’에서 [뇌]의 의미자질은 ‘脑’에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사람의 머리와 동물의 머리가 그 구성면에서 유사성이 인지되어 ‘동물의 머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동물의 머리를 지칭하여 ‘대가리’라는 비속어 표현을 따로 두어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어 ‘头’의 경우 ‘동물의 머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 동물의 수를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기능면에서 머리의 의미 확장은 한·중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중국어에만 있

는 의미자질로 [실마리]를 들 수 있고, 한국어에는 ‘머리(장머리, 인정머리)’ 따위의 기능적 측면에서 머리를 비하하는 표현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중국어의 경우 ‘头’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고루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데 비해 ‘腦’는 주로 기능적 측면에서, ‘首’는 주로 형태적 측면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나 중국어의 경우 ‘头’, ‘腦’, ‘首’가 각각 특성화 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머리	头	腦	首
형태면			
우두머리	우두머리	우두머리	우두머리
윗부분	윗부분		
앞부분	앞부분		앞부분
처음	처음		처음
	최고		최고
끝부분	끝부분		
가장자리	가장자리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구성면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모양	머리모양		
두개골	두개골		
뇌		뇌	
대가리	동물의 머리(양사)		
	사람	사람	
기능면			
지능	지능	지능	
사고	사고	사고	
지혜	지혜	지혜	
정신	정신	정신	
감정	감정	감정	
	실마리	실마리	
비하	가치		

표 3. ‘머리’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4.2. ‘얼굴’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인체어 ‘얼굴’에 관한 한국어 ‘얼굴’과 중국어 ‘面·脸’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국어 ‘얼굴’에 대해 중국어 ‘脸’의 의미자질이 보다 유사했으며 형태면을 제외하면 한·중 인체어 ‘얼굴’의 의미자질이 유사하다.

형태면에서 한국어 ‘얼굴’은 사물의 겉면이나 공간적, 추상적인 면을 나타내지 못하는 반면 어떤 대상의 진면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표상을 표현하는 경우 사용되는 예를 볼 수 있었다. 형태적인 면에서 사람의 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체면]의 의미자질은 한·중이 공통적이다.

구성면에서도 한국어 ‘얼굴’이 [마음]의 의미자질을 갖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한·중이 공통적이며 [만남]의 의미자질과 관련해 중국어 ‘面’이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세는 양사로 사용된다.

기능면에서 인체어 ‘얼굴’은 표정을 지음으로써 감정을 드러낸다. 얼굴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예는 한·중 양 언어 모두 다양하게 있으며 특히 색채 표현과 관련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얼굴	面	脸
형태면		
☞면(面)	겉면	겉면
	공간	공간
	추상	추상
체면	체면	체면
표상		
구성면		
사람	사람	사람
화장		화장
	마음	마음
인간관계		인간관계
만남	만남(양사)	만남

기능면		
감정	감정	감정

표 2. ‘얼굴’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4.3. ‘눈’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인체어 ‘눈’에 관한 한국어 ‘눈’과 중국어 ‘目·眼’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국어 ‘눈’과 중국어 ‘眼’의 의미자질이 비교적 유사했다. 특히 구성면,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이 유사했으며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은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가 보다 넓게 일어나고 있었다.

인체어 ‘눈’의 의미 확장과 관련해 한국어에서 ‘그물눈’이나 ‘바둑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점’을 뜻하는 ‘눈’은 인체어 ‘눈’과 동음이의어로 분류되고 있는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眼’의 의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언어학적인 면에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별이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시 대상 사이의 유연성과 관련해 볼 때 ‘그물눈’과 인체어 ‘눈’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눈’의 의미 항목으로 [구멍]을 첨가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에서 [눈금]을 의미하는 항목과, [식물의 눈]을 의미하는 항목 역시 형태적인 면에서 인체어 ‘눈’과 유사성이 지각됨으로 인체어 ‘눈’과 다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성면에서 의미 확장을 살펴보면 한·중 모두 공통적으로 [마음]이라는 의미자질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체어 ‘얼굴’의 경우 ‘인체 외적 부분: 얼굴→전체: [사람]→내적 부분: [마음]’로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 확장이 있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의 의미자질을 갖는 예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중국어 ‘眼’이 眼皮(儿)宽=眼皮(儿)杂=眼宽=眼杂(교체가 넓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인체어 ‘눈’이 [사람]의 의미자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능면의 의미 확장과 관련해 한·중이 대부분 공통적이며 한국어 ‘눈’이 그 기능상 유사성으로 인해 [자동차 전조등]으로 쓰이는 예가 달랐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전조등]의 중국어 표현을 보면 ‘头灯’이 쓰이는데 이는 중국어 ‘头’의 형태상 유사성에 따른 의미 확장으로 한국어의 경우 ‘눈’에서 기능적 유사성에 따른 의미 확장을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눈	目	眼
형태면		
		기포
		패인자국
작다		작다
구멍		구멍
세부조목		
	목차	
구성면		
눈주위		눈주위
중심요점		중심요점
마음	마음	마음
기능면		
전조등		
시력	시력	시력
시선 눈길	시선 눈길	시선 눈길
관심 주의	관심 주의	관심 주의
판단력	판단력	판단력

표 3. ‘눈’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4.4. ‘코’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인체어 ‘코’에 관한 한국어 ‘코’와 중국어 ‘鼻’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중 인체어 ‘코’의 의미 확장 양상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면에서 인체어 ‘코’는 얼굴의 정 중앙에 위치하며 높이 솟아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사물에 적용되어 한국어의 경우 버전이나 신 따위의 앞 끝에 오뚝하게 내민 부분을 일컫는데 사용되고 이와 관련해 중국어 ‘鼻’는 사물에 대해 불쑥 튀어나온 부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또한 ‘코’의 이러한 형태는 추상화되어 사람의 ‘자존심’이나 ‘우쭐덤’ 따위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데 한·중이 공통적 이었으며 [자존심]과 관련해 한국어 ‘코’는 ‘코가 납작해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존심이 꺾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중국어의 경우 한국어 ‘콧대를 꺾다’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拦头(콧대를 꺾다)’가 있는데 한국어는 얼굴 중에서 가장 높은 부위인 ‘코’를 사용하여 [고집]을 나타내는데 비해 중국어는 사람의 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부분인 ‘头’를 사용하여 [고집]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무안하거나 핀잔을 받는 상황을 [자존심]의 상징인 ‘코’를 떼거나 감싸 쥐어 보이지 않게 하는 행동으로 표현한다. 인체어 ‘코’에 관한 떼거나 감싸 쥐는 행동을 표현하는 중국어 표현은 ‘싫다는 뜻을 나타내는 동작, 싫어도 억지로 한다, 꺼림칙하게 여기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어와 표현 형식은 유사하지만 그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중국어 ‘鼻’의 경우 얼굴의 정 가운데 위치한다는 형태적 특성에 의해 어떤 [표준]을 의미하는데 인체어 ‘鼻’가 사용되며(拿他做个鼻子头儿: 그를 표준으로 삼다) 이와 관련해 한국어의 경우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잔뜩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모양을 이르는 ‘코가 비풀어지도록’이라는 표현이 있다.

구성면에서 인체어 ‘코’는 전체로서 부분을 대신하는 환유적 표현 방법에 의해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콧구멍], [코끝], [콧물]을 대신 지칭하며 중국어 ‘鼻’의 경우 [콧구멍]의 의미자질이 사물에 있는 구멍과 유사성이 인지되어 [구멍]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반면 한국어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을 지칭하여 쓰이고 이와 관련해 뜨개질할 때 눈마다 생겨나는 매듭을 세는 단위로도 사용된다.

인체어 ‘코’는 환유의 또 다른 방식인 부분으로서 전체를 대신하여 [사람]을 표현한다. 인체어 ‘코’로 [사람]을 나타내는 방식은 한·중 양 언어 모두 코의 모양으로 그런 모양의 코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데, 특히 서양 사람에 대해 ‘코배기,

양코, 코쟁이/大鼻子’로 표현하여 동양 사람과 구별되는 서양 사람의 여러 특징 중 ‘코’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는 양상이 공통적이었다.

기능면에서 의미 확장은 수적으로 가장 적었는데 ‘코’ 공기를 들이 마시고 내쉬는 기능이 동물에게 적용되어 동물이 숨을 세계 내뿜으면서 나는 소리를 인체어 ‘코’를 사용해 나타냈다.

코	鼻
형태면	
신발의 코	
	손잡이
자존심	자존심
우짚땀	우짚땀
고집	
무안	
	싫음
표준	표준
구성면	
콧구멍	콧구멍
코끝	코끝
콧물	콧물
	구멍
매듭(단위)	
사람	사람
기능면	
소리를 냄	소리를 냄

표 4. ‘코’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4.5. ‘입’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인체어 ‘입’에 관한 한국어 ‘입’과 중국어 ‘口·嘴’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국어 ‘입’에 비해 중국어가 특히, ‘口’의 의미 확장이 광범위하게 일어남을 볼 수 있다.

특히 형태면에서 한국어 ‘입’의 의미 확장 예는 찾아볼 수 없는데 반해 중국어의 경우 입의 형태적 유사성과 관련해 [입구], [구멍]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남을 볼 수 있으며 중국어 ‘口’는 우물, 종, 관, 독 따위의 아가리가 있는 물건을 세는 양사로도 사용된다.

구성면에서 의미 확장 역시 한국어 ‘입’으로 그 구성 부분을 지칭하는 예는 대부분 ‘입술’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중국어의 경우 ‘입술’외에 ‘혀, 입안, 입가, 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 한국어 ‘입’에 비해 중국어 ‘口’, ‘嘴’가 구성면에서 인접성에 따른 의미 확장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어 ‘口’는 ‘말이나 노새 등의 나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말이나 노새들의 이빨로 나이를 알 수 있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사람의 입과 동물의 주둥이가 유사하다는 데서 유사성이 지각되고 다시 입 안의 이빨과 인접성이 지각되어 인체어 ‘입’으로 동물의 나이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기능면에서 한국어 ‘입’과 중국어 ‘口·嘴’모두 공통된 의미자질로는 [음식]과 [말]이 있었는데 이는 인체기관 입의 중요한 기능이 음식을 먹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으로는 중국어 ‘嘴’경우 동물, 특히 새에 대해 사용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 새의 부리처럼 돌출한 지형에 관해서 그 유사성 인지 되어 ‘沙嘴(사주의 돌출부), 山嘴(산부리)’ 와 같이 표현도 사용된다.

한국어의 경우 동물의 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둥이’가 쓰이고 새에 관해서는 ‘부리’를 사용하여 사람의 입과 구별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입을 낫잡아 ‘주둥이(주둥아리), 아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어 ‘口’의 경우 사람(식구)을 세는 양사로서도 사용된다.

입	口	嘴
형태면		
	입구	입구
	구멍	
구성면		
입 주위-입술	입 주위-입술, 혀, 입안	입 주위-입술, 혀
	말 노새의 나이	

기능면		
		부리
먹다	먹다	먹다
사람	사람(양사)	
분량	분량	
말	말	말

표 5. ‘입’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4.6. ‘귀’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인체어 ‘귀’에 관한 한국어 ‘귀’와 중국어 ‘耳’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중 인체어 ‘귀’의 의미 확장 양상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면에서 인체어 ‘귀’는 사람의 얼굴 양 옆에 돌출 되어있는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이 사물에 대해 양 옆으로 돌출한 부분과 그 유사성이 인지되어 사물의 양 옆에 달린 부분에 적용되어 사물에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 즉 손잡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이는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귀’의 경우 주전자의 부리같이 그릇의 한쪽에 바깥쪽으로 내밀어 만든 구멍에 관해서도 ‘귀때’ 혹은 ‘귀’를 써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형태적으로 돌출된 특성과 인체어 ‘귀’의 구성면에서 갖는 [구멍]의 의미자질이 동시에 작용되어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인체어 ‘귀’가 얼굴에서 ‘양 끝에 있다’는 점이 유사성 인지 능력이 작용하여 사물이나 공간의 끝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어의 경우 ‘귀처럼 생긴’ 버섯의 이름을 인체어 ‘귀’를 사용하여 명명하고 있는데 한국어 역시 한자어 그대로 ‘목이버섯’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구성면에서의 인체어 ‘귀’는 걸귀, 가운데귀, 속귀로 이루어져 있으면 인접성 인지 능력(전체→부분/부분→전체)에 의해 인체어 ‘귀’로 그 구성 부분을 지칭할 수 있다. 인체어 ‘귀’가 그 구성 부분을 지칭하는 표현은 주로 귓바귀를 비롯하여 걸

귀를 지칭하는데 쓰이는데 이는 귀의 구성 부분 중에서 가장 밖으로 두드러져 있어 눈에 잘 띄고 언어생활에 있어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체어 ‘코’가 인접성에 의해 그 속의 분비물인 [콧물]을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어 ‘귀’도 그 속의 분비물인 [귀지]를 지칭하며 이때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파다/掏, 掘’라는 동사와 함께 쓰이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인체어 ‘귀’는 귀의 구성 부분인 [귓구멍]을 지칭하기도 한다. 인체어 ‘귀’가 [귓구멍]의 의미자질을 갖는 경우 한·중 모두 ‘후비다, 파다/掏, 掘, 搯’ 동사와 함께 쓰이고 있어 [귓구멍]과 [귀지]의 의미 구분이 불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인체어 ‘귀’가 [귓구멍]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해 사물에 난 구멍과 그 구성상의 유사성이 인지되어 [구멍]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기능면에서의 인체부분 귀가 다른 인체 부분과 구별되는 기능은 듣는 기능이다. 따라서 청각 기관으로서 귀는 [듣다]는 의미자질을 갖는다. [듣다] 의미자질과 관련해 귀는 [이해]의 의미까지 확장되고, 다시 [판단]의 의미로 확장된다. 인체어 ‘귀’가 이러한 의미 확장을 보이는 것은 한·중 양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귀	耳
형태면	
손잡이	손잡이
끝	끝
	귀처럼 생긴 것
구성면	
귀 주변	귀 주변
귀지	귀지
귓구멍	귓구멍
구멍	구멍
기능면	
듣다	듣다
이해	이해
판단	판단

표 6. ‘귀’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4.7. ‘손’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인체어 ‘손’에 관한 한국어 ‘손’과 중국어 ‘手’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중 인체어 ‘손’의 의미 확장이 거의 유사했으며 의미 항목 또한 다른 인체 부분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손을 사용하는 일이 가장 겉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형태면에서 인체어 ‘손’이 갖는 의미자질로 [손잡이]가 있다. 이것은 팔목의 끝 부분이 사물의 끝 부분과 그 형태적 유사성이 지각되어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중 양 언어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구성면에서 인체어 ‘손’은 손을 구성하는 손가락과 그 인접성이 지각되어 [손가락]을 의미 한다. 이것은 ‘전체→부분’인 환유의 일종이며 이와 반대로 부분인 손으로 전체인 사람을 지칭하여 [사람]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특히 [사람]의 의미자질에 관해서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한·중 모두 많았으며, 중국어의 경우 특별히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지칭하거나(高手, 名手, 妙手) 미숙한 사람을 지칭하는(新手, 生手, 嫩手, 冷手) 등 [사람]의 의미자질과 관련해 그 사용 범위가 한국어 ‘손’보다 넓었다.

또 인체어 ‘얼굴’이 [사람]의 의미자질을 통해 [마음]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어 ‘손’ 역시 ‘손→사람→마음’의 간접적 전의 관계를 통해 [마음]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한·중 공통적이다. [사람]의 의미자질과 관련해 한·중 양 언어 모두 [관계]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데 특히 중국어 ‘手’의 경우 ‘有一手’라 하여 부정적인 남녀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기능면에서 손은 무엇을 잡거나 가리키는 기능을 하는데 가재나 계의 잡는 기능을 하는 부분, 식물에서 무엇을 잡고 올라가는 부분, 시계의 가리키는 부분과 그 유사성이 인지되어 ‘가재의 손’, ‘계의 손’, ‘덩굴 손’, ‘시계의손’ 등과 같은 표현이 쓰이는데 이는 한국어에만 보이는 예이다.

그 밖에 손의 기능과 관련한 의미자질은 한·중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어 ‘手’의 경우 ‘手紙’, ‘淨手’와 같이 용변과 관련해 사용하거나 ‘手風’, ‘手氣’,

‘手硬’과 같이 [행운]의 의미로 쓰이는 예가 한국어 ‘손’과 달랐다.

손	手
형태면	
손잡이	손잡이
구성면	
손가락	손가락
사람	사람
일손	일손
	능숙한 사람
마음	마음
관계	관계
기능면	
생물, 사물의 손	
작다	작다
세력	세력
쌈쌈이	쌈쌈이
손으로 직접	손으로 직접
솜씨	솜씨
능력	능력
수단	수단
손버릇	손버릇
	용변
	행운

표 7. ‘손’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4.8. ‘배’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인체어 ‘배’에 관한 한국어 ‘배’와 중국어 ‘腹·肚’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구성면에서는 한국어 ‘배’와 중국어 ‘腹’이 유사한 의미자질을 가지며, 기능면에서는 한국어 ‘배’와 중국어 ‘肚’가 유사한 의미자질을 갖는다.

형태면에서 인체어 ‘배’는 인체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다는 특성이 사물에 적용

되어 사물의 중간 부분, 또는 볼록한 부분을 지칭하는데 중국어 ‘腹’의 경우 사물의 [중간부분]의 의미자질에서 확장하여 ‘사물→공간’으로 확장되어 공간상의 [중앙]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중국어 ‘腹’은 인체어 ‘배’가 사람의 몸 앞부분에 위치한다는 형태상의 특성에 의해 [앞부분]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이때 중국어 ‘腹’은 뒤를 의미하는 ‘背’와 쓰이며 문맥에 따라 ‘앞뒤’를 의미하기도 하고, ‘배와 등’에서 추상화 되어 ‘매우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구성면에서 보면 인체에서 배 부분은 겉으로는 둥근 형태로 배꼽이 보일 뿐이지만 그 안에 위, 장, 십이지장 따위의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 음식물이 들어 있지 않아 허기를 느낄 때 ‘배가 고프다’는 표현으로 ‘위’ 대신에 인체어 ‘배’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차 포만감을 느낄 때도 ‘배가 부르다’라는 표현으로 ‘위’ 대신 인체어 ‘배’로 표현한다. 이것은 ‘위’는 인체 내부의 장기로 눈에 보이지 않아 언어생활에 있어서 가시적인 인체 부위 ‘배’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은 한·중 양국의 인체어 ‘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인체어 ‘배’ 역시 다른 인체 부분과 마찬가지로 ‘외적 부분: 배→전체[사람]→내적 부분: 마음’의 전의 과정을 통해 ‘마음’이라는 의미자질을 갖으며 한·중 양 언어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배는 그 내부를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없는 인체 부분으로 사람이 속으로 품고 있는 ‘내심, 생각, 속셈, 의중’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한국어와 중국어 ‘腹’에서 이러한 의미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면에서의 한·중 인체어 ‘배’와 ‘肚’는 음식물의 소화 작용의 기능을 하는 위장 등을 갖추고 있는 소화기관으로서의 배부른 상태, 배고픈 상태의 기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배의 기본적인 소화 기능은 [식욕]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또한 한·중 인체어 ‘배’와 ‘肚’ [임신, 출산]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국어 표현 중에서 ‘배가 낡산만 하다’는 임신부의 배가 부름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사용하며 중국어 표현 중에 ‘임신’이나 ‘임신부’를 의미하는 ‘大肚子’에 관한 ‘小肚子’는 ‘아랫배’를 의미하여 그 의미가 임신이나 출산과 관계가 없다.

[임신]의 의미가 좀 더 과생되면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까는 횡수의 단위로 즉 [동물에서의 출산]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러한 표현은 한국어 ‘배’에서만 보인다.

배	腹	肚
형태면		
사물의 중앙	사물의 중앙	
	앞	
구성면		
위	위	위
장	장	장
마음	마음	마음
생각	생각	
기능면		
식욕		식욕
임신		임신

표 8. ‘배’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4.9. ‘발’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인체어 ‘발’에 관한 한국어 ‘발’과 중국어 ‘足·脚’의 의미 확장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중 인체어 ‘발’의 의미 확장은 특히 기능면에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면에서 인체의 가장 아래 부분에 달려있다는 인체어 ‘발’의 형태적 특성은 다른 사물에 적용되어 사물의 가장 아래 부분에 달려있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때 한국어의 경우 인체어 ‘발’과 ‘다리’가 구별되어 쓰이나 중국어의 경우 ‘桌脚=桌腿(책상다리), 椅子脚=椅子腿(의자다리)’와 같이 발의 의미를 갖는 ‘脚(발목 아래 부분을 지칭)’와 다리의 의미를 갖는 ‘腿(발목 윗부분을 지칭)’가 혼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이 인체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한다는 형태적 특성에서 중국어 ‘脚’의 경우 酒脚(남은 술), 下脚(판매하고 남은 것), 泔脚(쌀뜨물, 개숫물), 脚货(하등품, 하치) 货脚(팔다 남은 상품), 皂脚(비누 제조의 부산물)과 같이 [찌꺼기], [우수리], [여분]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구성면에서 한·중 인체어 ‘발’은 공통적으로 [발바닥]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한국어 ‘발’은 [발목], 중국어 ‘脚’은 [다리]의 의미자질을 각각 갖는다.

기능면에서 한·중 인체어 ‘발’의 의미 확장은 가장 유사하다. ‘발’은 사람의 몸을 지탱하거나 움직여 이동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유사성이 지각되어 동물의 몸을 지탱하고 움직여 이동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인체어 ‘발’을 사용하여 지칭한다.

‘발’은 운동기관으로서 걷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이와 관련해 [걸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인체어 ‘발’이 [걸음]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관련해 한국어 ‘발’은 수사 뒤에 쓰여 ‘걸음을 세는 단위’로도 사용된다.

‘발’의 걷는 기능과 관련해 범위를 표현하는 ‘넓다’와 함께 쓰여 교제나 인간관계가 넓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어 표현은 ‘眼皮杂, 眼宽(교제가 넓다, 발이 넓다)’인데 한국어는 인체어 ‘발’로, 중국어는 인체어 ‘眼’으로 각각 [교제]의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인체어 ‘발’은 발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추상화되어 어떤 일이나 사건, 모임에 들어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발’의 기능 중의 하나의 걸음걸이의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발	足	脚
형태면		
사물의 발	사물의 발	사물의 발 찌꺼기, 우수리, 여분
구성면		
발목		
발바닥	발바닥	발바닥 다리
기능면		
동물의 발	동물의 발	동물의 발
걸음(단위)	걸음	걸음
관계	관계	관계
마음	마음	마음

표 9. ‘발’의 한·중 의미 확장 비교

4.10. 한·중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 비교 결과

이상으로 한·중 인체어휘를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인간의 인접성 인지 능력과 유사성 인지 능력에 따른 의미 확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비교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체어 ‘머리’에 관한 한국어 ‘머리’와 중국어 ‘头·脑·首’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국어 ‘머리’의 의미자질과 중국어 ‘头’가 가장 비슷한 형태로 의미자질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인체어 ‘얼굴’에 관한 한국어 ‘얼굴’과 중국어 ‘面·脸’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국어 ‘얼굴’에 대해 중국어 ‘脸’의 의미자질이 보다 유사했으며 형태면을 제외하면 한·중 인체어 ‘얼굴’의 의미자질이 유사하다.

3. 인체어 ‘눈’에 관한 한국어 ‘눈’과 중국어 ‘目·眼’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국어 ‘눈’과 중국어 ‘眼’의 의미자질이 비교적 유사했다. 특히 구성면, 기능면에서의 의미 확장이 유사했으며 형태면에서의 의미 확장은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가 보다 넓게 일어나고 있었다.

4. 인체어 ‘코’에 관한 한국어 ‘코’와 중국어 ‘鼻’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중 인체어 ‘코’의 의미 확장 양상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인체어 ‘입’에 관한 한국어 ‘입’과 중국어 ‘口·嘴’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국어 ‘입’에 비해 중국어가 특히, ‘口’의 의미 확장이 광범위하게 일어남을 볼 수 있다.

6. 인체어 ‘귀’에 관한 한국어 ‘귀’와 중국어 ‘耳’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중 인체어 ‘귀’의 의미 확장 양상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인체어 ‘손’에 관한 한국어 ‘손’과 중국어 ‘手’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중 인체어 ‘손’의 의미 확장이 거의 유사했으며 의미 항목 또한 다른 인체 부분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손을 사용하는 일이 가장 겉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8. 인체어 ‘배’에 관한 한국어 ‘배’와 중국어 ‘腹·肚’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구성면에서는 한국어 ‘배’와 중국어 ‘腹’이 유사한 의미자질을 가지며, 기능면에서는 한국어 ‘배’와 중국어 ‘肚’가 유사한 의미자질을 갖는다.

9. 인체어 ‘발’에 관한 한국어 ‘발’과 중국어 ‘足·脚’의 의미 확장을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중 인체어 ‘발’의 의미 확장은 특히 기능면에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일상생활에서 기초어휘는 자주 사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초어휘 중에 인체어휘는 인간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체 부위에 관한 명칭으로 그 자체로 사용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사물이나 새로운 사물을 명명할 때 활용도가 높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체어휘가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근접한 지리적 위치와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으로 많은 연관을 가지는 한·중·양 국민의 의식구조나 생활양식이 인체어휘의 의미구조 속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중·양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습관에서 인지과정상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인체어 ‘머리’의 의미에 관해서는 한·중·양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우두머리], [윗부분], [앞부분], [처음], [끝부분], [가장자리], [나머지], [머리카락], [머리모양], [두개골], [뇌], [동물의 머리], [지능], [사고], [지혜], [정신], [감정]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었고, 한국어 ‘머리’만 갖는 의미자질로서 [비하]의 의미가, 중국어 ‘머리’만 갖는 의미자질로는 [최고], [사람], [실마리]가 있었다.

2. 인체어 ‘얼굴’의 의미에 관해서는 한·중·양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체면] [사람], [화장], [인간관계], [만남], [감정]이 있고 한국어 ‘얼굴’만 갖는 의미자질로 [표상]이 있으며 중국어 ‘얼굴’만 갖는 의미자질로 [겉면], [공간상의 면], [추상적인 면], [마음]이 있었다.

3. 인체어 ‘눈’의 의미에 관해서는 한·중·양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작다], [구멍], [눈 주위], [중심·요점], [마음], [시력], [시선·눈길], [관심·주의], [판단력]이 있고, 한국어 ‘눈’만 갖는 의미자질로 [전조등], 중국어 ‘눈’만 갖는 의미자질로

[기포], [패인 자국], [세부 조목], [목차]가 있었다.

4. 인체어 ‘코’의 의미에 관해서는 한·중 양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자존심], [우쭐냄], [표준], [콧구멍], [코끝], [콧물], [사람], [소리]의 의미자질을 갖고, 한국어 ‘코’만 갖는 의미자질로 [신발의 코], [고집], [무안], [매듭]이 있으며 중국어 ‘鼻’만 갖는 의미자질로 [손잡이], [싫음], [구멍]이 있었다.

5. 인체어 ‘입’의 의미에 관해서는 한·중 양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입 주위], [먹다], [사람], [분량], [말]이 있고, 한국어 ‘입’만 갖는 의미자질은 없었고, 중국어 ‘嘴’만 갖는 의미자질로는 [입구], [구멍], [말, 노새의 나이], [부리]가 있었다.

6. 인체어 ‘귀’의 의미에 관해서는 한·중 양 언어에서 거의 공통적인데 [손잡이], [끝], [귀 주변], [귀지], [콧구멍], [구멍], [듣기], [이해], [판단]이 있고 중국어 ‘耳’만 갖는 의미자질로 [귀처럼 생긴 것]이 있었다.

7. 인체어 ‘손’의 의미에 관해서는 한·중 양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손잡이], [손가락], [사람], [일손], [마음], [관계], [작다], [세력], [쌈쌈이], [손으로 직접] [숨씨], [능력], [수단], [손버릇]이 있었고, 한국어 ‘손’만 갖는 의미자질로 [생물, 사물의 손] 중국어 ‘手’만 갖는 의미자질로는 [용변], [행운]이 있었다.

8. 인체어 ‘배’의 의미에 관해서는 한국어 ‘배’와 중국어 ‘腹’이 공통적으로 [사물의 중앙], [위(胃)], [장(腸)], [마음], [생각]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중국어 ‘腹’만 갖는 의미자질로 [앞]이 있다, 한국어 ‘배’와 중국어 ‘肚’가 공통적으로 [위(胃)], [장(腸)], [마음], [식욕], [임신]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9. 인체어 ‘발’의 의미에 관해서는 한·중 양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사물의 발], [발바닥], [동물의 발], [걸음], [관계], [마음]이 있고, 한국어 ‘발’만 갖는 의미자질로 [발목]이 있었고 중국어 ‘足’만 갖는 의미자질은 없었고, ‘脚’만 갖는 의미자질로 [찌꺼기, 우수리, 여분], [다리]가 있었다.

하나의 어휘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는 일은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독해력 신장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인체어휘의 의미 확장에 대해 살펴본 이 논문이 한·중 양 민족의 전통적인 고유문화와 사상이 스며있는 한·중 양 언어의 인체어휘 관련 표현에 관한 정확한 이해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1995), 「中韓辭典」, 「韓中辭典」.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2. 단행본

남성우(1985), 「국어 의미론」, 영언문화사.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이경자(1999), 「우리말 신체어 형성」, 충남대학교 출판부.
이기동 편(2000),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이을환 · 이용주(1964), 「국어 의미론 서설」, 현문사.
이정식(2003), 「다의어 발생론」, 도서출판 역락.
이종열(2003), 「비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임지룡(1997),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홍사만(1993), 「한·일어 대조어학」, 탑출판사.
Farb. P.(1973), 「말 그 모습과 쓰임(Word Flay: What Happens When People Talk)」, 이기동 외 공역(1997), 한국문화사.
Heine. B.(1997), 「문법의 인지적 기초(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이 성하 · 구현정 역(2004), 도서출판 박이정.
Lakoff. G. & Johnson.M.(1980), 「삶으로서의 은유(Metaphors We Live By)」, 노양진 · 나익주 역(1995), 서광사.

3. 논문

강덕구(1995), “한·일어 신체어 어휘소의 다의구조 연구: 얼굴, 눈, 머리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병윤(1983), “국어 인체어의 비교연구-变迁과 分岐年代를 中心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익호(2006), “한일 양국 신체어휘 관용어의 비교·대조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문창(1976), “손’의 어휘체계에 대하여”, 『국어연구』, 29호,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 김보경(2000), “한국어 신체어의 은유와 환유”,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옥(2004),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어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1995), “어휘 의미와 문법”, 『동방학지』, 88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남성우(1969), “국어 다의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성식(1996), “신체어 ‘손’, ‘발’의 의미 전이에 관한 연구”, 『한글』, 한글학회.
- 박경숙(2003), “한국어 인체어 어휘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명아(2000), “국어 신체어 관련 관용표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도용(1999), “머리 관련 어휘의 어휘 변화”, 『한국어 의미학』, 4호, 한국어의미학회.
- - - (2001), “우리말 신체어의 의미 확장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혜영(1998), “한·일어 신체어 관용표현의 대조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기(1986), “한국어 관용표현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11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양태식(1983), “‘손’을 둘러싼 어휘소 무리의 의미 구조”, 『새국어교육』37호, 한국 국어교육학회.
- 우형식(1988), “신체어의 의미론-어휘 의미론적 분석 시도”, 『연세어문학』, 21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이건환(2002), “현대 국어의 의미 확장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자(1980), “신체어의 ‘머리’의 합성”,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7-2호, 충남대학교.
- - - (1983), “신체어의 ‘입, 귀’의 합성”,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10-2호, 충남대학교.

- - - (1996), “신체어 ‘눈’의 의미 고찰”, 『한밭한글』, 1호, 한글학회 대전지회.
- 이기동(1984), “다의어와 의미의 일관성”, 『인문과학』, 52호,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 - - (1986), “낱말의 의미와 범주화”, 『동방학지』, 50호, 연세대 국학연구소.
- 이상도(1999), “신체어 다의 구조에 관한 한·중 대비 연구”, 『중국연구』, 2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종열(1998), “‘가다’의 다의성에 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어 의미학』, 3호, 한국어 의미학회.
- 이지현(1996), “‘손’ 바탕 어휘 생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옥(2003), “汉语人体词语研究”, 南京大学 박사학위논문.
- 임지룡(1995), “환유의 인지적 의미 특성”, 『국어교육연구』, 27호, 국어교육학회.
- - - (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호, 한국언어학회.
- - - (1996), “은유의 인지언어학적 의미 분석”, 『국어교육연구』, 28호, 국어교육학회.
- - - (1998), “다의어의 비대칭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 15호, 언어과학회.
- 최규일(1982), “인체 어휘고”, 『국어국문학』, 87호, 국어국문학회.
- 최택호(2004), “한·일 양국어의 신체어휘를 사용한 관용 표현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은영(1997), “신체어 관련 속담의 의미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사만(1985), “신체어의 다의 구조 분석(I)”, 『소당 천시권 박사회갑기념 국어학논총』.
- - - (1986), “신체어의 다의 구조 분석(II)”,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 - (1991), “신체어의 다의 구조 분석(III)”, 『들메 서재극 박사회갑기념 논문집』, 계명대학교 출판부.
- - - (1993), “신체어의 다의 구조 분석(IV)”, 『어문논총』, 27호, 경북어문학회.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Widening Meaning of Human Body
Vocabularies in Korean and Chinese**

Kim, Bo-mi

A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Choe, Kyu-II

The acquisition of vocabula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learning foreign language. Building up vocabulary does not, of course, mean the completion of language acquisition, but the mastery of vocabulary is essential to learning foreign language. The cognitive-semantic approach in lexical learning in particular is helpful to systemic and effective learning since the approach illustrates the human's conceptional system laid on the basis of language phenomena. In cognitive-semantic aspect, lexical learning through widening meanings of basic vocabularies is beneficial to strengthening word formation, the ability to express, and thinking. This study therefore aims at examining how the meanings of human body vocabulary of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could be expanded in cognitive-semantic respect, which helps any Korean or Chinese acquires multi-meanings or idiomatic expressions of human body vocabularies while learning Korean or Chinese language or vice versa.

Those objects for this study are limited to such nine human body vocabularies as 'head, face, eye, nose, ear, mouth, hand, stomach, and foot,' which easily widen their meanings. The comparative study is summarized in three categories of form, structure, and function as follows:

1.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Korean '머리[meori](head)' with Chinese '头[tou]·脑[nao]·首[shou](head)' shows that the semantic component of Korean '머리[meori]' has best similarity to Chinese '头[tou]'.
2.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Korean '얼굴[eolgul](face)' with Chinese '面[mian]·脸[lian](face)' shows that the semantic component of Korean '얼굴[eolgul]' has a lot of similarity to Chinese '脸[lian]' and except for form, the semantic feature of 'face' in Korean

and Chinese has semblance in structure and function.

3.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Korean '눈[nun](eye)' with Chinese '目[mu]·眼[yan](eye)' shows that the semantic component of Korean '눈[nun]' has a lot of similarity to Chinese '眼[yan]' and especially the widening of meaning in structure and function has similarity. As for the widening of meaning in form, Chinese has a wider range than that of Korean.

4.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Korean '코[ko](nose)' with Chinese '鼻[bi](nose)' shows that the semantic components of Korean and Chinese 'nose' are almost similar to each other.

5.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Korean '입[ib](mouth)' with Chinese '口[kou]·嘴[zui](mouth)' shows that the semantic components of Chinese '口[kou]' in particular has a wider range of meaning than Korean.

6.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Korean '귀[gwi](ear)' with Chinese '耳[er](ear)' shows a lot of similarity to each other in aspect of widening meaning.

7.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Korean '손[son](hand)' with Chinese '手[shou](hand)' shows a lot of similarity to each other in aspect of widening meaning and also the category of meaning is wider than other human body vocabularies.

8.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Korean '배[bae](stomach)' with Chinese '腹[fu]·肚[du](stomach)' shows that both Korean '배[bae]' and Chinese '腹[fu]' have similarity in semantic feature, and Korean '배[bae]' has similar semantic feature with Chinese '肚[du].'

9.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Korean '발[bal](foot)' with Chinese '足[zu]·脚[jiao](foot)' shows that Korean and Chinese words for 'foot' have a lot of similarity in widening meaning, especially in aspect of function.

The structure of a human body is basically the same and the ways of thinking and categorization has common aspects to some extent, which assumes that, no matter what language they use, the expansion of meaning of body vocabulary has similar conceptual syste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meaning phenomena of human body vocabularies in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through cognitive-semantic approach has proven that the lingual conventions of Korean and Chinese speakers have similarity in the process of cognition.

※ This thesis 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